

# 定慧社

불기 2545년 겨울 | 제24호



송광사 전통강원



# 운력 運力

눈이 내립니다. 이런 날 마침 정오를 알리는 대종이 울리면 꼭 대웅보전 뒤편을 거닐어 보십시오. 진여眞如로 향하는 문 뒤로 콧콧하게 앉아 있는 수선사修禪社의 풍광風光 말고도 그를 떠받치고 있는 크고 작은 바위들로 만든 축대를 눈여겨 살펴 보십시오. 삼일암에서부터 역대의 선사先師를 모신 풍암영각에 이르기까지, 몇 백 년을 한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어져온 목우가풍牧牛家風의 올곧한 법法을 짚어지고 있습니다.

그 돌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것임에도 그렇게 견고한 것은 아마 옛 스님들의 땀방울이 스며 있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 후학後學들은 그 아래에서 몇 번이나 풀을 뽑고 마른 가지를 줍기도 하며, 당신들처럼 땀 흘리며 운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에 비하면 운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운력들에 저희들은 쉽게 지쳐 버렸고, 신심信心보다는 때론 분심忿心에 사로잡힌 저희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분심이 경전經典 대신 호미를 쥐고, 풀 먹여 날이 선 승복 대신 흙 묻은 운력복을 입고, 간경삼매看經三昧를 놓아 두고 장작을 쌓고 대나무를 베는 범부凡夫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스님이라서 천대받던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법法으로써 보시를 펴는 것이 스님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모를 뿐입니다. 조계산 텃밭에 채소를 기르지 않으면 사다 먹을 수도 없었선 그때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몸소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풍요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운력할 때 가장 신심이 낮어요.”

어른 스님들의 이런 말뜻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눈이 옵니다.

저녁 예불, 안행雁行하는 길.

도반 스님들이 밝고 가는 길을 뒤따라 걷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은 하얀 눈 위에 찍힌 번뇌의 흙발자국입니다. 번번히 지워지고 다시 찍는 번뇌의 길. 그 발 아래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축대.

작은 돌로라도 몇 천 년 당신들과 함께 한 덩어리, 일심一心이고 싶습니다.



# 定慧社

불기 2545년 겨울호 | 통권 제24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교수논단  
그릇된 수행법을 경계한다 3 | 지운
- 9 기획연재  
7세조사 자정국사 일인  
8세조사 자각국사 도연
- 13 조계산 메아리  
구산스님과 운력 | 주지 스님
- 17 詩가 있는 풍경  
부도탑전에서 | 혜광
- 18 지대방 이야기  
소임에 대하여 | 만학  
아이구 다리야 | 종안  
외출 | 해진  
일일이이 | 용은
- 23 정혜탐방  
광주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
- 28 경전 한 구절  
침묵
- 29 목우단상  
秋曹溪 | 석원  
「서장」을 배우면서 | 일조  
상생죽필문 | 도해  
동안거를 시작하며 | 진봉  
얼굴 | 고웅
- 36 특별취재  
토성칠교, 파헤쳐진 전설 | 편집실
- 40 바람소리 한 자락  
불효 | 해청  
예, 시님! | 수원
- 42 목우 도량석/송광사 어린이법회를 찾아서  
어린이법회 지도법사를 맡을 상주소임자가 있으면 좋겠다 | 편집실
- 45 화보로 보는 강원 소식
- 48 정혜사 안내  
소년소녀가장 후원  
심장병 환자 후원
- 50 강원소식·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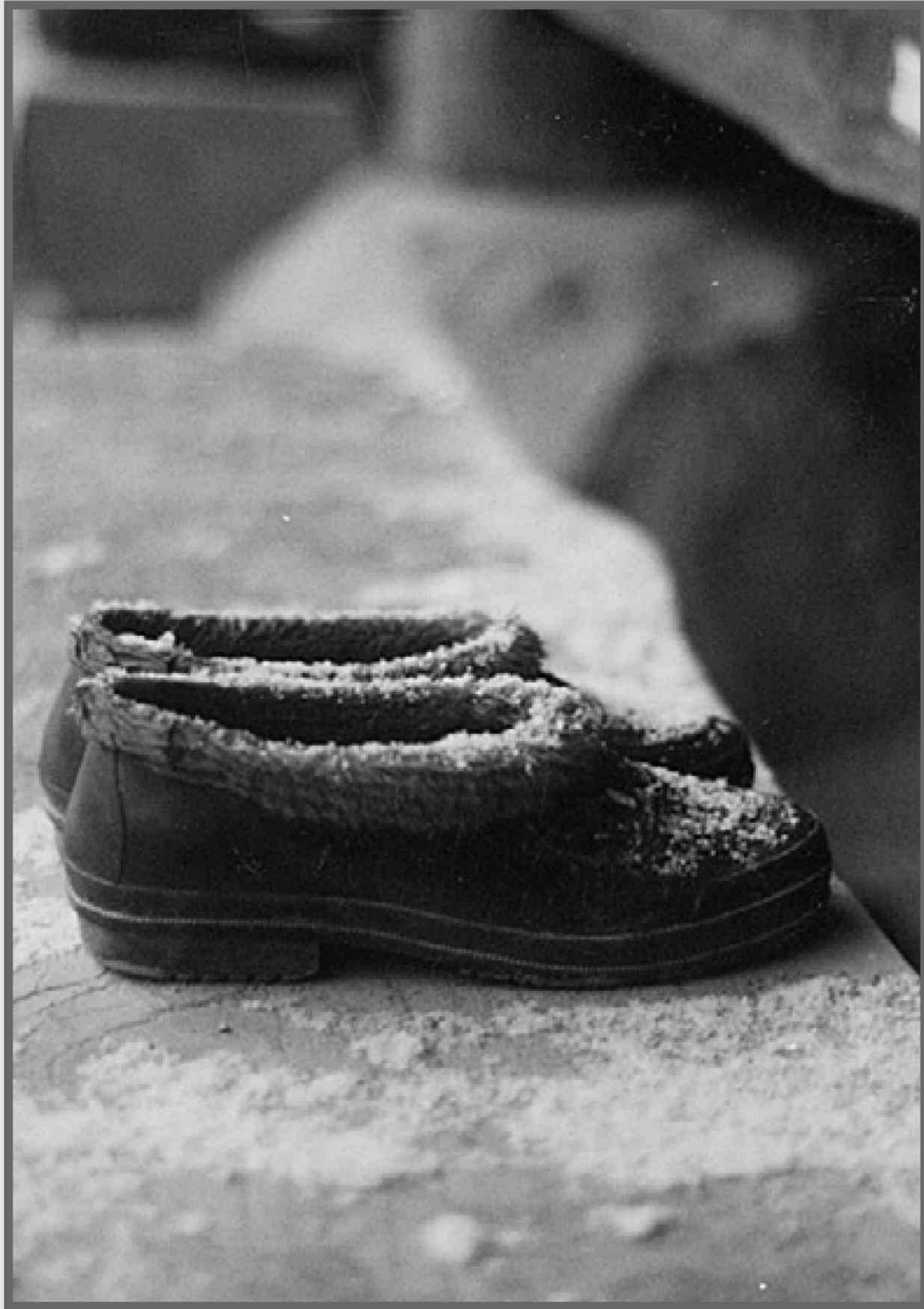


새해 첫날.  
“如是我聞...”  
「금강경」 독송소리가  
부처님의 땅으로 안행雁行해 가는  
모든 중생들의 환희에 찬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올해에도 온 법계에  
날마다 해가 뜰 것입니다.  
사진 | 동아일보 조성하 기자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지운(강주講主)  
편집인 | 고웅(입승)  
편집장 | 효산  
편집 | 해진·남전  
사진 | 해진

발행일 |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2월 10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 061) 755-5302









가지런히 걸음을 댕돌 위에 놓아두고  
조용히 마음으로 '조고각하照顧脚下' 읊조리면  
팔만사천 모든 범문 한 귀절서 알아듣네.

글·사진 | 편집실



# 그릇된 수행법을 경계한다 3

지운智雲 | 송광사 강주

이 원고는  
항간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그릇된 수행방법을 경책하는 글이다.  
바른 깨달음은  
바른 수행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법의 참된 모습에서 떠난 수행은  
큰 업(業)을 쌓음은 물론  
바른 법에서 멀어질 뿐이니,  
이에 불교의 올바른 수행방법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1. 서론

그동안 두 번의 연재를 통해 마음수련원의 조작된 수행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잘못된 수행방법의 허虛와 실實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불교의 바른 수행방법을 제시 하겠다.

## 2. 본론

### 1) 수련방법의 허함과 실함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마음수련원에서 주장하는 깨쳐 가는 과정과 깨달음에는 허虛와 실實이 있다. 마음수련원에서는 기억을 밖으로 던져 없애고, 몸을 잔인하게 죽이고 버림에 의해 간혀 있는 '사람의 마음', 곧 업業이 없어져 마음이 참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깨침이라고 주장한다. 그 깨침의 내용은 자아 의식이 없어져서 삼라만상과 일체가 됨이라 한다. 또한 우주가 내 안에서 부서짐을 전인완성의 깨침이라 한다.

우선 실實을 이야기하자면, 사람마음과 몸을 죽이는데는 효과적인 면이 있다. 기억을 밖으로 던져 없앤다는 것은 기억에 묻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과거의 쓰라리고 괴로웠던 기억들이 단순한 사건으로만 기억된다는 점이다.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안해 진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몸의 건강도 회복된다고

한다. 몸을 죽이고 버리면 몸에 배인 습관이나 견해로 인해 맺히고 굳어있던 것이 풀어져 몸의 오래된 병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 실實의 단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계·색계·무색계 가운데 색계초선色界初禪의 경계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지도 폭력으로 몸을 죽이고 파괴하여 얻었기 때문에, 정념正念으로 관觀하여 얻는 불교의 경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무엇이 허虛인가? 우선 기억은 밖으로 던져 없앤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던져서 기억이 없어진다면 깨친 사람들은 모두 돌덩어리와 같은 바보천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을 던져 없애서 사람마음을 일체 없앤다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거짓이다.

또한 몸을 죽이고 버리는 것에 어떤 허점이 있을까? 자기 자신이 죽어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거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想像하는 것까지는 긍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화장을 시키는데 망치를 상상하여 부수거나 그래도 부서지지 않으면 냉동시켜 다시 망치로 부수거나, 톱으로 토막내거나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에는 더더욱 폭력적인 방법을 고안한다고 하니 생각할수록 끔찍스럽다. 이는 의도적인 폭력이며 잔인한 폭력을 부른다. 이것



은 조작할 수 없는 깨달음의 내용인 공성空性和 정면으로 위배된다. 조작한 깨침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조작은 생멸生滅하기 때문이다. 또 그런 '깨침'을 유지하려면 조작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뿐이다.

## 2) 올바른 깨달음에 대하여

깨침의 본성은 무이무상無二無相이기 때문에 중생의 미혹迷惑이나 성인의 깨침은 본질상 같다. 즉 증감增減이 없다. 이 말의 뜻은 깨달음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본성本性的 무이무상을 발견할 뿐이다. 이것이 참다운 깨달음이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연경因緣經」<sup>1)</sup>에서는 “법 자체가 생멸生滅이 없는 공空이며, 법 자체가 본래 모습 그대로 그러하며(法爾), 법 자체가 변함없는(法如) 진리”라고 한 것이다.<sup>2)</sup>

마음의 본성이 무이무상無二無

相임을 깨치면 더 이상 조작하여 그 경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반복할 필요가 없다. 조작할 수 있는 이미지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성을 한번 깨치면 그 체험은 영구적이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업의 장애業障를 녹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행동, 즉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자신을 스스로 아는 것뿐이다. 가면 가는 줄 알고 서면 서는 줄 알며 머물면 머무는 줄 알며 누우면 눕는 줄 알아야 하며 말하면 말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아는 이것을 '깨어있음'이라 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를 주시하는 '깨어있음'이 지속되면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고요함(禪定)과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지혜가 개발된다. 깨어있음이란 곧 정념正念이며 정념은 관觀이다. 그것은 '깨어있음'으로 조작하는 마음을 철저히 쉬는 것이다.

정념正念에 의한 선정禪定的 중요성은 그것이 바로 진리를 깨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한 대상에 마음을 잘 집중하며 알아차리고 있으면 조작하는 마음이 점점 약화되어 마침내는 마음의 움직임이 중지되어 버린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는 그 본성이 비고 연기함을 보아서 깨닫는 것이다.

「자설경自說經」 우다나송頌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순간을 노래한 초야初夜の 게송이 다음과 같이 들어 있다.

‘실로 열심히 선정禪定에 들어 있는 수행자에게

진리가 현현顯現될 때,

그때 그의 모든 의심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연기緣起의 법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우다나의 게송偈頌은 깨달음의 근원적 체험이 법으로써 나타날 때, 동시적인 의미를 가진 '깨달았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선정禪定에서 깨달음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선정은 깨달음의 마당이 되며, 선정의 장場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가 연기임이 관照觀照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조작함이 없는 관照와 무작위無造作的 연기가 상응함이 선정의 장場이 되고, 이 선정의 장을 통한 관照로 제법諸法이 연기함을 깨닫는 것이다.

연기라는 진리가 조작이 아니라 함은, 조작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은 선정이라는 바탕 위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아는 관觀에 의해 있는 그대로 정념에 의해 발견된 진리가 바로 연기이므로 연기법은 조작이 아닌 것이다.

「연기법경緣起法經」<sup>3)</sup>에서는 이렇게 이르고 있다.

1) 阿含藏註：本經說明不管如來出世未出世 因緣法常住法界 但示如來成等正覺之後 因緣法經 佛開示才顯發於世, <잡아함 296 (大：2-84b, 한글：잡1-344, 佛光：잡-296, 南：12.20 paccaya)>

2) “此等諸法, 法住法空法如法爾, 法不離如, 法不異如, 審諦眞實不顛倒, 如是隨順緣起, 是名緣生法, 謂無明行識名色六入處觸受愛取有生老病死憂悲惱苦, 是名緣生法.” “이러한 모든 법은 법의 '머무름', 법의 '空', 법의 '如', 법의 '爾' 이니라. 법은 '여' 를 떠나지 않고 법은 '여' 와 다르지 않으며 분명하고 진실하여 뒤바뀌지 않아서 연기를 그대로 따르나니 이것을 연생법이라 한다.”

3) 阿含藏註：本經說明 '緣起法' 非世尊所作, 非餘人小作, 彼爲法界常住, 爲如來所覺, 爲衆生說 <잡아함 299 (大：2-85b, 한글：잡1-348, 佛光：잡1-574)>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쿠루수의 조우부락에 계시었다. 때에 어떤 비구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 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든 것이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래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여래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다투게 깨달음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해 연설하고 드러내어 보이니,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이, 분명히 연기는 나와 남이 만든 것이 아님을 천명天明하고 있다. 말하자면 연緣이란 상호관계를 말하고 기起란 상호관계

에서 생기고(緣生) 사라지는(緣滅) 것을 말한다. 즉 직접원인(因)과 간접원인(緣), 조건의 관계에 의해 생기는 조건으로 발생한 결과인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는 서로가 직접 원인과 조건이 되어 그 사이에 자식이라는 결과가 생기며 다시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는 늙어가지만(滅) 자식은 태어나는(生)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는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 모든 현상이 바로 인연 因緣이요 인과因果이며 연기緣起인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자설경自說經」을 통해 본다면 진리란 땅이나 하늘, 산, 바다, 나무 등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만 나타나며 갖가지 마음의 작용 중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인 선정禪定이라는 장場을 통해서 연기라는 진리가 나타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마음의 온전한 깨어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깨달음과 모든 존재의 실상인 연기법이 불이不二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법 밖에 마음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은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여러 기술들이 이 깨달음의 근원적인 체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은 「화엄경」에서 설하는 깨침의 결과인 해인삼매海印三昧와 같다. 즉, 깨달음의 바다에 삼세三世의 일체 진

리가 나타나는 것이 마치 끝이 없는 큰 바다 표면에 모든 사물이 도장을 찍듯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는 것에 비유된다.

또한 「대혜어록大慧語錄」에서는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이 비춰지고, 중국인이 오면 중국인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깨끗한 거울(明鏡)에 사물이 비칠 때 대상의 모습에 따라 있는 그대로 뚜렷하게 그 그림자를 비추고, 조금도 왜곡시키거나 감추는 것이 없는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모습이다.

### 3) 잘못된 깨달음과 낮은 단계의 수행

혹자는 방법이야 어떻든간에 마음수련원에서 주장하는 각 단계의 수련과정이 불교수행의 현상과 같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겉만 비슷하지 동일하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몸의 형상이 없어지는 것은 마음수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왜 사라지는가? 이 문제는 아주 평범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물음이다. 그것은 완력을 쓰든 그대로 놓아두든 몸은 생로병사生老病死하여 없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없애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원래 비어 있다는 진실에 대해 무지無知하기 때문이다.

4) “如是我聞。一時佛住拘留搜調牛聚落。時有異比丘，來詣佛所，稽首禮足，退坐一面，白佛言。世尊，謂緣起法，爲世尊作，爲餘人作耶。佛告比丘。緣起法者，非我所作，亦非餘人作。然彼如來出世及未出世，法界常住。彼如來自覺此法，成等正覺，爲諸衆生，分別演說開發顯示，所謂此有故彼有，此起故彼起。謂緣無明行，乃至純大苦聚集，無明滅故行滅，乃至純大苦聚滅。佛說此經已，時彼比丘，聞佛所說，歡喜奉行。”



왜냐하면 몸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본래 허공과 같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위적인 힘으로 파괴할 필요가 없다. 비슷한 현상인 것 같으나 전혀 다르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마음수련원의 수련법에서 몸의 형상을 폭력적으로 없는(無)상태로 만드는 것은 조작일 뿐이다. 형상 그대로 비어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관觀' 말고는 없다. 관은 인위적으로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 밀어 부치는 식의 완력이 아니라, 본성이 비어 있음을 보아서 확인할 뿐이다. 그래서 관觀하여 없어진 것은 나중에 몸의 형상이 생겨도 형상 그대로 허공과 같이 비어 있지만, 마음수련원의 무無상태는 힘으로 밀어부쳐서 없음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체험은 오래가지 못하여 몸은 원상태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 체험을 유지하려면 계속 없애야 하고 형상 있을 때도 그 형상은 비어 있지 않다. 본성이 본래 비어 있음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실제 컵이나 물건은 모양이 있다. 파괴하려면 던지거나 망치같은 것으로 내리쳐야 한다. 그래서 인위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수련원의 수련법에서는 몸의 형상을 없애는 방법으로 폭탄이나 칼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힘으로 부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몸이나 기억이 본래 비어 있는 것이라면 굳이 생각으로 폭탄이나 칼 등의 이미지를 만들어 파괴할 필요가 없다. 단지

업의 장애業障를 녹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행동, 즉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자신을 스스로 아는 것뿐이다. 가면 가는 줄 알고 서면 서는 줄 알며 머물면 머무는 줄 알며 누우면 눕는 줄 알아야 하며 말하면 말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아는 이것을 '깨어있음'이라 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를 주시하는 '깨어있음'이 지속되면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고요함(禪定)과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지혜가 개발된다. 깨어있음이란 곧 정념正念이며 정념은 관觀이다. 그것은 '깨어있음'으로 조작하는 마음을 철저히 쉬는 것이다.

몸과 우주의 본질인 공성空性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관하여 몸이 사라지는 체험은 그 체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몸이 실체가 없어 허공과 같이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있게 하거나 있는 것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본성을 본 것이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형상 그대로 비어 있는 것이니 「반야심경」에서는 “색色이 곧 공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sup>5)</sup>고 설한다. 즉 '형상'과 '비어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 그대로 진공묘유眞空妙有이며 전초 존재 즉 우주도 몸과 같이 형상 그대로 비어 있어 또한 진공묘유이다.

조작하여 몸을 없애는 방법으론 결코 선정이 일어나지 않을지니 선정이 없으면 지혜도 없어 설사 공공함을 본다고 할지라도 조작하여 죽이려던 습이 남아 진실한 깨달음이 아니며 오히려 조작된 공공인지라 업만 쌓일 뿐이네

또한 이와 같이 조작된 업業에 의한 방법이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단계의 경지라면 일시적이거나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수련원에서 주장하



는 몸의 형상이 사라지는 인식의 단계는 색계초선의 경지(구차제정 九次第定에서 첫 번째 경지의 선정)에서 체험하는 낮은 단계의 정신현상과 비슷하다. 색계선정의 경지는 정신적·육체적 즐거움이 현존하는 유위有爲이며 유루有漏의 상태인 것이다. 색계色界 제사선第四禪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즐거움이 사라지지만 이 상태도 궁극적인 깨달음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불법이 아닌 외도의 선정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이다. 엄밀히 말하면 낮은 단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사물의 본성을 직관할 수 있는 선정의 개발을 통한 경지가 아니라 거친 파괴의 업에 의하여 조작되어 일시적으로 나타난 업의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마음수련원의 깨달음이란 방법론적으로도 업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업의 특성 또한 거칠고 잔인해서 악업의 과보를 불러들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경지도 낮은 단계의 선정 수행의 공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조작된 결과여서 결국은 다시 무너지는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계는 생각이 완전 소멸되지 않아서 업이 되고 이단계부터는 수단이 잔혹하고 폭력을 반복하니 습翳이 되며

5) “色卽是空 空卽是色 色不異空 空不異色”

삼단계의 생사일여生死一如는 생사를 일으키는 근본 무명의 최초의 한 생각이 생생하게 살아 있으니 어찌 생사일여라 할 것이며 사단계의 대각은 업과 습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이것은 사이비 깨달음이다

### 3. 결론

-정법正法으로 외도外道를 척파하며-

이상으로 마음수련원의 수련방법에 대한 허상과 실상, 올바른 깨달음의 방법과 그 내용 그리고 마음수련원의 낮은 단계의 수련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정법수행의 핵심은 깨달음으로 통한 윤회輪廻와 업業으로부터의 해탈解脫이며 계율戒律·선정禪定·지혜智慧의 삼학三學에 의지한 수행으로서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세간世間의 천류遷流하는 생멸生滅의 모습이 곧바로 열반涅槃의 공적空寂한 실상實相과 한치의 차이도 없음을 깨달아 이러한 연기실상緣起實相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절대 평등絕對平等한 무연자비無緣慈悲를 일으켜 세간으로 회향廻向하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의 모습인 것이다.

의식과 사랑으로 나누고 분별하여 본래 공적한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파괴한 망상의 결과를 깨달음이라고 주장하며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하루 속히 정법에 귀의

하기를 바랄 뿐이다.

근자에 유행하는 불교계 주변의 외도수행법을 바라보면서 파사破邪가 곧 현정顯正임을 확신하며 외도 척파를 위한 필자의 소견을 장황하게 연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수행으로 모든 이들이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한다.

법성法性是 바로  
중도中道 수행의 바른 잣대  
극단적인 수행은  
바른 길이 아니네  
본래 없는 것을 있다 하여  
없음을 구함이어  
네 평생 수고로울 뿐  
지혜는 없네  
설령 사대육신이  
공함을 본다 하나  
조작으로 부수고 없앤  
소득공所得空이니  
이것은 탐욕일 뿐  
지혜라 할 수 없네  
이러한 소득공所得空도  
생멸문生滅門의 첫 손님이라  
당장 그 자리서 없애려는  
그 마음을 관할지니  
그리하여 본래 사대가  
공함을 깨달으면  
그 깨친 마음은  
본래 공함을 안 것일 뿐  
대각大覺이라 이름하지 않아도  
불멸不滅의  
반야지혜般若智慧로세



기획연재

# 7世 祖師 자정국사慈靜國師 일인一印



불일보조국사 이래로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를 승보종찰이라 부른다. 면면히 사자상승(師資相承)되었던 16국사의 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정혜결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고 선양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제7세 자정국사와 제8세 자각국사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사의 빗돌글(碑文)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여서 그 행장行狀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국사의 정액幀額과 탑제塔題에 근거하여 살펴 보건대 조정朝廷에서 내린 시호諡號는 자정국사慈靜國師이고 탑액塔額은 묘광妙光이며 국사의 탑은 자정암慈靜庵의 동북쪽 산등성이에 있다.

정조 16년 1792년 봄에 와월교평선사臥月教萍禪師가 수집하여 기록한 '송광사사적松廣寺事蹟'에 따르면 국사의 휘는 일인—印이고, 제5세인 원오국사의 제자이다.

그런데 원감국사圓鑑國師의 가송歌頌 가운데 '차운답 규봉 인선백 次韻 答圭峰 印禪伯'과 '차운답 난송선사 인공 次韻 答蘭松禪師 印公'에서 나타나는 '인선백印禪伯'과 '인공印公' 가운데 한 분이 곧 일인—印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원감국사나 자정국사가 다 함께 원오국사의 제자이니 서로가 사형사제지간師兄師弟之間이 되므로 인공印公, 또는 인선백印禪伯이라 호칭했을 것이다.

원감국사가 인공印公과 인선백印禪伯에게 준 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에 '규봉 인선백'에게 운하여 답함이라  
 청이 남색에서 나왔으나 남색보다 낮네  
 허물을 봄이 그대보다 많아 지남을 잊도다  
 못 새가 모두다 난새가 날아감에 놀라고  
 못 여우는 다투어 범의 노려봄을 피하네  
 붓끝에서 구름일어 한가할 제 읊조리고  
 사슴꼬리, 바람나니 격외의 말씀일세  
 도예와 시 이름이 천하로 달리나니  
 숲속에서 달 보며 외딴 암자에 눕지 못할까 두렵구나

다음에 '난송선사 인공'에게 운하여 답하다  
 계산의 가장 깊은 곳에  
 높이 누워 분화로움을 멀리하도다  
 거울 속엔 원래 티끌이 없고  
 병 속에 스스로 집이 있도다  
 뜨락 빔에 솔씨 떨어지고  
 방안 고요함에 향 연기 피어나고  
 무엇으로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꼬  
 향내 나는 나물과 진한 차로세



자정국사 부도탑



8世 祖師  
자각국사慈覺國師 도영道英





국사께서 원감국사의 뒤를 이어 제7세 법주法主가 된 것은 아무래도 원감국사께서 입적하신 충렬왕忠烈王 19년(1293) 계미세뫼巳歲임이 의심할 나위없고, 입적하신 연대는 충선왕忠宣王 또는 충숙왕忠肅王의 초기쯤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각국사의 빗돌글도 일찍이 없어져서 온전한 행장을 살필 길 없다. 다만 정액幀額과 탑제塔題로 보건대 시호는 자각국사慈覺國師이고 탑호는 징영澄靈이며 탑은 감로암甘露庵 뒤 기슭에 있다.

각진국사覺眞國師의 빗돌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나이 갓 열 살에 조계曹溪의 원오국사에게 나아가 머리를 깎고 구족계具足戒를 받으니, 얼마 안 있어 원오국사께서 열반에 드실 제 국사의 유언을 따라 도영대선사道英大禪師를 좇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10년 만에 학문을 통달하였다.

자각국사는 스님의 두 번째 스승이시라, 심히 예禮로써 예우하셨으니 일찍이 학인을 가르치는 학도의 자리를 스님에게 위임하셨다. 이에 스님이 다시 여쭙기를 “자기가 있는 연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온데 저는 진실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는 드디어 백암사白巖寺로 가셨다.

이 빗돌글 가운데 도영道英은 자각국사이니 자각국사의 휘가 곧 도영인 것이다. 그렇다면 원오국사의 휘가 천영天英임에 비추어 본다면 도영, 즉 자각국사는 원오국사의 사제師弟임이 분명하다. 그런즉 조계제 사세曹溪 第四世인 진명眞明국사의 법사法嗣에 자각도영慈覺道英, 자각국사의 법사에 각진복구覺眞復丘임도 여실히 드러난다.

와월臥月스님의 ‘송광사적’은 “국사의 휘는 정열晶悅로서 제5세를 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 기록은 각진국사의 비문에 실린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와월스님이 어떤 자료를 참고로 하여 이렇게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각진국사의 비문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증명되는 바, 참고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일 와월스님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도열道悅은 국사의 자字가 아닐까 싶고 제5세 원오국사를 이었다는 것은 착오에 불과할 것이다.

국사께서 제8세 법주로 재임한 시기는 충렬왕忠烈王 후반기와 충선왕대忠宣王代인 듯하고 시적하신 연대는 충숙왕대忠肅王代인 것으로 여겨진다.



자각국사 부도탑



## 구산스님과 운력運力

현봉 | 송광사 주지



‘운력’이라는 주제로 ‘조계의 물소리’를 적어나가다 보니 여러 미진함 점이 많았다. 특히 편집자의 사견私見이 많이 개입한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었다. 편집회의를 통해 지대방에 ‘조계의 물소리’라는 설문지를 돌렸다. ‘협동’이 빠진 운력이 가져다 준 후학들의 박복함을 한탄하는 한 스님의 글이 눈에 띄었다. 여러 도반 스님들께 지문을 구했다. 모두들 어른 스님께 여쭙볼 것을 권했다. 스님다운 사고라는 것에 아직 익숙치 않으므로.

구산스님을 오랫동안 시봉하셨던 주지 현봉스님을 찾아뵈었다. 역시 답은 선지식의 행行 하나하나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인들이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을 다뤄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기로 했다. 그 이름이 ‘조계산 메아리’. 어눌한 목소리지만 많은 반향反響들이 들려오기를 빌며 구산스님의 법석法席을 이 자리로 옮겨 본다.



운력運力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나봐. 옛날에는 동네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흥을 돋워가면서 일을 했잖아. 요즘에는 절에도 대중들이 많해보니까 일년에 김장운력 정도나 한 번 할까. 그런데도 이 운력을 놓고 뭐 노동착취쯤으로나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운력하고 정진精進하고 둘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깨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가 다 운력이라. 밥 먹고 예불까지 그게 다 운력인지 몰라. 운력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지.

대중이 다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은 다 운력이라. 운運이라는 것이 ‘운전하다’고, 력力은 ‘힘쓸 력’자, 대중의 일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이게 운력 아니겠어. 대중이 하나까 내가 게으름을 못 피우고, 또 내가 힘을 보태주니까 대중이 편해지고, 이렇게 운력 그 자체가 공주共住하고 공생共生하며 살아가는 원리라고 생각해야지.

구산스님같은 분은 평소 말이나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분이셨고, 또 당신이 몸소 실천을 통해서 그 수행을 표현하시려고 하셨어. 그래서 어묵동정 행주좌와 할 때 점점의 연장선상으로 운력을 보신 것이지 당신이 노동한다 하는 생각은 없으셨지. 구산스님처럼 밭 매고 추수하고 또 대중하고 늘 정진하시던 분은 근래 선지식 가운데는 없어. 늘 하시는 말씀이 “중이 콧등에 땀이 나면 수좌首座가 아니다”고 하셨거든. 예를 들면, 조계산 상봉에서 내가 스님을 모실 때 나무를 해 와서 사시공양을 지어드리고, 다시 싸리를 뜯거나 나무를 하러 가면 등 뒤에서 “화두나 잘 챙겨라” 하시거든. “중이 일에 빠지면 일꾼이여. 중이 아니여.”

사실 일에만 열중해서 일꾼으로 일할라치면 녹을 사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렇지만 콧등에 땀이 나는 안 된다는 것은 그 일에만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거든.

여름에는 대중이 참 힘들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참깨 밭에 풀을 뽑는 일이었어. 참깨는 싹이 잘 안 나고. 또 나도 너무 작아서 풀이 먼저 자라 늘 덮어버리곤 했으니까. 간신히 촉을 빼 놓으면 다시 참깨가 조금 나와. 그러면 또 풀이 한 줌 자라거든. 그러면 대중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거야. 하루종일 매도 장판 한 장도 못 매는거야. 그러면 노장님이 제일 앞장서서 가셨지.

그때는 보리를 많이 심었거든. 비가 오면 노장님께서 보리밭에서 보리단을 매고 와서 부려 놓으셨지. 그러면 다른 대중들이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 그곳에 살려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 취봉노스님 같은 노장님들도 나오시거든. 일하다 좀 피곤하면 “도감, 이제는 그만 노스님들은 들어가시라고 해라”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노장님은 끝까지 남아 계셨거든.

하루 종일 밭 치우거나 산에 나무 심는 일. 이것들을 당신이 먼저 하시고, 후원에 둘러 보시는 것도 늘 그러셨고, 바늘로 떨어진 쌀을 주우셔서 삶아라 하시니 대중이 어떻게 하겠어.

누가 예불을 안 나오잖아, 그러면 예불 다 끝내 놓고, “안 나오시는 스님이 아픈가, 우리 문병 가자” 하시거든. 그러면 허허, 다음부터는 예불을 빠질 수가 없었지.

#### **그렇게 하루 종일 운력을 하면 대중들이 정진할 시간은 있었는지요.**

그때도 열세 시간쯤 정진했지. 운력이 있을 때는 늘 운력을 하시면서 범문을 하셨어. 풀은 이렇게 베어야 한다, 나무는 한쪽을 이렇게 썰어놓고 베어야 한다, 그런 비법을 하나하나 손수 가르쳐 주셨지.

공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양하다가 한 수좌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으면 드시던 손가락을 쟁그랑 놓으시고는 “밥에 빠져 밥충이 노릇하고 있느냐”고 한 마디 해 주시면, 뜨끔해가지고 다시 정신을 챙기곤 했지.

고추를 따면 땀 둘러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바로 법담法談이라. “나는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루어 나갔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진하는 그 자체가 운력이었지. 운력과 정진을 구분하니까 짜증이 나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정진할 때는 순일하게 되다가도 운력할 때 화두를 놓아 버리면 아



무 소용없어.

하루는 수좌가 운력을 하다가 호미로 지렁이를 끊어놓았어. “스님, 불성佛性이 이쪽에 있습니까, 꼬리 쪽에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산 법문이 나오시거든. 법상法床에서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거야. 그리고 당신이 몸소 체험하신 것을 얘기하시거든. 어떤 증거를 대서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했다. 또 누구는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해주셨지.

청암사에서 원주 소임을 사시면서 겨울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인제 정진해야겠다 하시고는 토굴로 들어가서 일주일을 계족鷄足으로 용맹정진하셨지. 잠이 오니까 계족정진을 하신거야. 조금만 졸리면 앞으로 쓰러질 것 아냐. 일주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초견성初見性을 하셨다고 했지.

그렇게 정진하시면서도 늘 일이야. 가야산 법왕대法王臺도 일하면서 정진하시려고 지으신 거지. 당시 석호스님, 서옹스님하고 토굴터를 찾아다녔는데, 며칠을 헤매도 나타나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 까마귀가 와서 스님들을 이끌고 가니 마침 아주 좋은 터가 나타났는지. 서옹스님은 “까마귀가 이끌어 주었으니 오도암烏導庵이라고 하자” 하셨는데, 구산스님이 “우리는 법왕法王이 되려고 왔으니 법왕대라고 하자” 해서 그렇게 되었지. 그런데 토굴을 지으려니까 화주가 안 돼. 그래서 정진하면서도 기도를 하니까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내생來生의 복을 당겨 써라’고 하거든. 다시 말해서, 늘 효봉스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회상을 꾸러가다 보니 언제나 원주다, 도감이다 하면서 내생에 올 복을 많이 쌓았단 말이지.

제일 복福 쪼가리 없는 것이 남의 복만 땡겨먹는 것이거든. 어지간히 공부해가지고는 그 복도 갚지 못해. 그래서 늘 복을 아껴라, 정재淨財를 아껴쓰라 하셨지 다른 까닭이 있었던 것은 아니야. 너무 남의 복을 땡겨 쓰다 보면 내생에는 그 빚 갚는다고 공부를 더 못하는거야. 그래서 늘 공부를 위해서 운력을 하신 거지 일을 좋아해서 운력을 하신 것은 아니야. 총림에 도감을 하시면서도 틈만 나면 법왕대로 올라가 전력을 다해 공부하셨어. 바로 그곳에서 견처見處가 나서 효봉스님께 여쭙니 법상法床을 차려주시며 “인제부터 네가 법문해라” 하셨거든.

백련암도 1948년에 무너진 것을 구산스님께서 논 백마지기 값을 들여서 중수를 했지. 그리고 6·25 지나고 나서 진주 응석사에 계실 때 그 옆에 금오스님이 “구산 수좌는 토굴 살 능력이 있다” 하셨다는 거야. 본사 하나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토굴 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지. 밥 짓고 농사 짓고 그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정진력이 있어야 하거든. 곧, 안과 밖이 순일해야 토굴 살 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 바로 그 응석사에서 나타난 경계를 효봉스님께 적어보내 올리니 효봉스님이 전법계傳法偈를 주셨지.

정진하고 운력하고 경계가 없으셨어. 늘 좌복에 앉아 있을 시간이 따로 없으셨어. 늘 일하는 가운데 정진하시고, 미래사 짓는다고 효봉스님을 도와 시봉하셨지. 늘 그 틈틈이 공부하셨지. 법왕대·용화사 토굴·응석사 토굴·광양 백운사 토굴·미래사 토굴...

보통 앉아 있는 것만 정진이라고 하는데, 안과 밖이 둘이 아니라 그 둘이 투명하게 되어가는게 바로 정진이라 할 수 있지. 어록語錄에도 앉아만 있다 도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 덕산·설봉·암두, 이 스님 세 분은 늘 호미를 걸망에 넣고 어떤 회상에 가서든 풀을 매 주고 그러던 가운데 깨치신 경우거든.

구산스님도 학이지지學而知之하셨지, 생이지지生而知之 하신 것은 아니거든. 당신이 몸소 김장도 담그고, 또 일을 하시며 늘 힘들게 사시다 보니, 그 몸소 느낀 체험을 정진할 때 그대로 대입하니 정진도 순일하게 해 나가신 거지.

예를 들면, 김장 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싱겁게 넣으면 숨이 안 죽는다”, 김장 하는 아줌마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지. 이런 이치처럼 이러한 일의 이치를 보고 그것을 정진할 때 바로 적용하신 것이지. 사事에서 바로 이理의 이치를 보고, 또 理를 통해서 事를 보고, 이것이 바로 정진이지. 빗자루를



들고 맨 먼저 나오신 것도 대중들이 혹 게을러질까봐 외호外護한다는 뜻에서 하신 것이지.

인월정사에 계실 때도 늘 올라오시면 너무 좋아하셨어. 당신 개인적으로 정진을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 방장方丈 같은 것 놓고 원도 없이 정진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늘 그러셨거든. 장흥 뒷산에 토굴 지어 놓은 것도 방장하시면서 정진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어 놓으셨지. 그래서 상봉 인월정사에 올라오셔서 좀 시간이 있으시면 그대로 일주일 용맹정진을 하셨지. 늘 밤 10시가 되어 스님께서 “인제 그만 자거라” 하시면 나는 잠깐 자다가 다시 열한 시 반쯤 일어나곤 했지. 왜냐면 자정에 물이 바뀌니까 늘 그 물을 드셨거든. 그렇게 드시면 또 새벽 세 시까지 정진하셨지. 그렇게 인월정사에 한번 올라 오시면 죽을등 살등 정진하셨어.

늘 정진하실 때는 나보고는 뜨거운 방에 앉으라고 하시고 차가운 방에는 당신이 앉으셨어. 졸리니까. 그래서 늘 문지방 바로 앞에서 정진하셨는데 졸다가 앞으로 조금 넘어지면 바로 문이 탁하고 열릴 것 아냐, 그렇게 찬 바람이 들어오라고... 또 스님은 늘 졸때면 옆으로 조셨거든. 보통 스님들은 앞으로 조는데, 왜냐면 늘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정진을 하시니 늘 잠이 오셨거든. 그래서 잠을 쫓으려고 목에 송곳을 놓고 정진하셨다가 그게 습이 되어 늘 옆으로만 조시게 된 거지. 얼마나 낮에 일을 한다고 힘드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 스님이 빗자루 들고 앞에 나갔니 안 나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요새는 너무 편안하니까 도인이 안나오거든.

내 복이 없으면 도道를 닦을 복도 얻지 못하는 거야. 내가 복을 지어가면서 공부하면 수행을 더 오래 끌어갈 수 있는데, 받아 먹기만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게 짧을 수 밖에 없어. 하나의 수행의 방편으로 당신의 수행을 더 오래 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멀리 내생까지 봐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지 다른 것은 없어.

금오스님께 어떤 수좌가 물어보았다. “선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니 “복인福人이어야 돼. 복인.” 그래서 수좌가 어떻게 복인이 선지식이 될 수가 있냐고 하니 금오스님이 “너는 잘 모른다. 나중에 되어 봐야 알 꺼다” 하셨거든.

제 챙겨 먹을 것 다 먹으면서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복을 안 지으면 그건 무언가 안 맞는 것이지. 무위법無爲法이 정진이라면 유위법有爲法은 윤력이나 공양이라 할 수 있지. ‘이무위법以無爲法으로 이유허차별而有差別이 있다’, 무위법으로 차별을 둔다고 그러잖아. 정진하는 그 마음은 소위 무위법이고, 윤력하고 복 짓는 것은 차별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 학인 스님들이 윤력을 수행과 다르게 놓고 보면 힘들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거야. 늘 내 수행을 위해서 복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윤력을 하면서도 내 살림살이를 살펴야지, 그 윤력 조금한다고 여기저기에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는거야. 구산스님은 윤력을 정진삼아 하셨어도 밤이면 또 용맹정진하셨잖아.

불평할 시간이 없는거야, 이 공부는.

▶송광사에서는 늘 결재를 앞두고 천왕재를 지낸다. 언제나 동당스님께서 노구를 이끄시고 겨울 해질녘의 추위를 무릅쓰고 큰소리로 염불을 하시는 모습을 행자 때부터 지켜봐온 터다. 왜 천왕에게 재를 지내는 걸까? 이렇게 저렇게 사리事理를 따지다가 또 윤력 앞에 가서는 이것은 부당하네, 이것은 아니네 하고 다시 따지게 되었던 것 같다. “이 떡 다 돌려야 돼, 알았지?” 몇 번이고 되물으시던 동당스님의 깊은 뜻 또한 불과 몇 십 해 전, 조계산을 호령하셨던 구산스님의 법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방장 스님 또한 윤력 때마다 이러저러한 말씀을 늘어놓으시는 것도 바로 그 법法이리라. 다만 알아듣지 못하는 자신을 탓할 뿐, 부쩍 아위신 두 노스님들의 법체를 걱정해야 하지는 않을지. -편집실



詩가 있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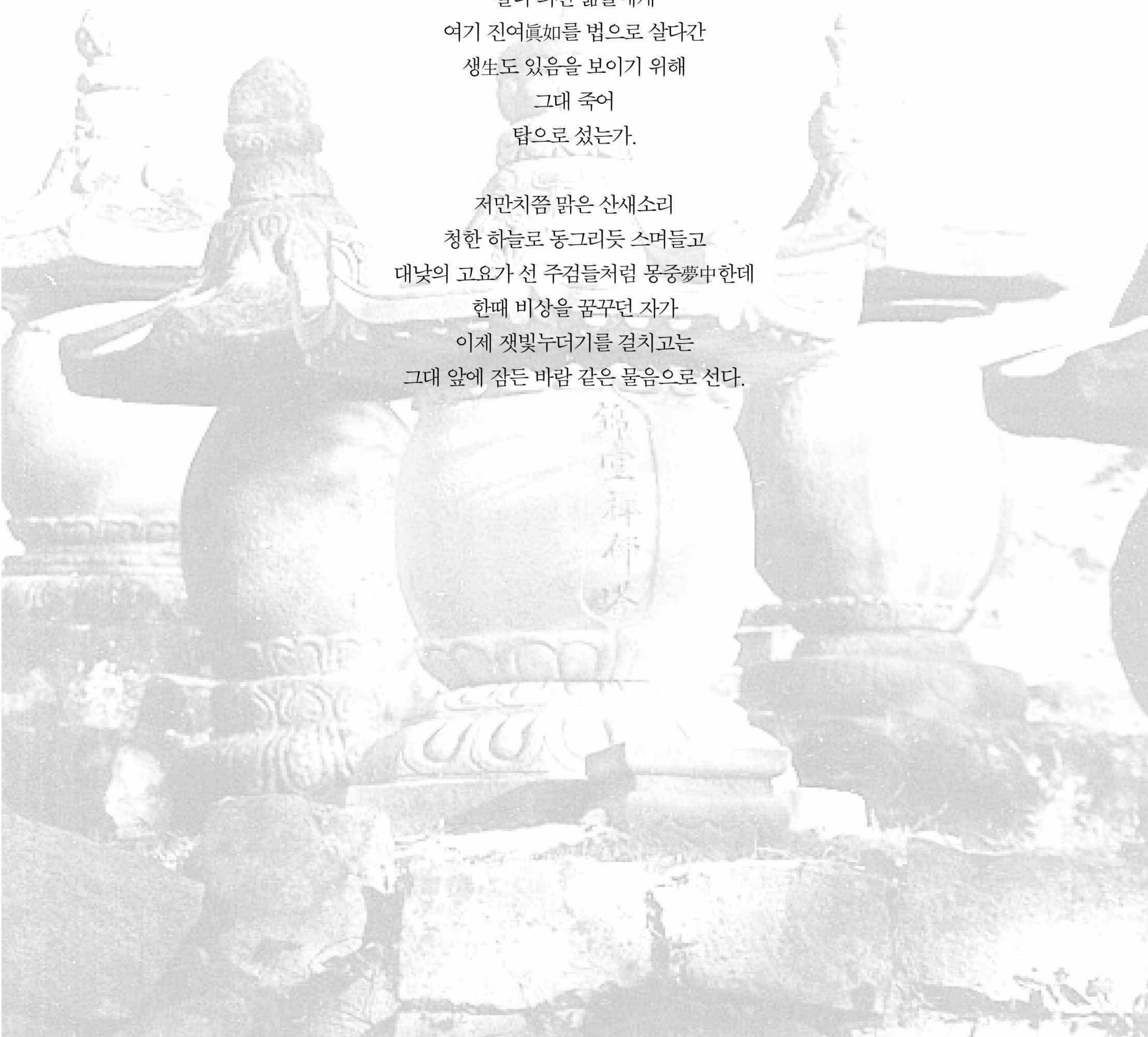
## 부도탑전에서

혜광慧光 | 치문

아직 이렇게 언어가 많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과거 사념思念으로 살았던 수많은 시연들과  
남긴 세월 또 만상萬相으로 존재를 표명할  
잘디 퍼진 삶들에게  
여기 진여眞如를 법으로 살다간  
생生도 있음을 보이기 위해  
그대 죽어  
탑으로 섰는가.

저만치쯤 맑은 산새소리  
청한 하늘로 동그리듯 스며들고  
대낮의 고요가 선 주검들처럼 몽중夢中한데  
한때 비상을 꿈꾸던 자가  
이제 잣빛누더기를 걸치고는  
그대 앞에 잠든 바람 같은 물음으로 선다.





## 소임에 대하여

만학晩學 | 사집

치문반 봄 산철이 시작되었다. 소임은 지장.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도서실 책 정리, 아침에 마이크 설치, 도서관 청소 등등, 그래서 한 철이 지나갔다.

여름 하안거 소임은 수두. 수각장 청소, 계단 청소, 걸레 빠는 일, 삭발일에 삭발준비, 그 밖에 몇 가지 더 있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무사히 끝났다.

가을산철 소임은 간병과 차량. 하는 일은 간병실 청소와 약 구입, 차 관리. 환자가 있을 때에 병원에 간병인으로도 간다. 다행히 환자는 없었다.

가을산철이 끝났다. 동안거 소임은 큰방. 정관·선혜·원각·나·석범·사미반 흥전, 이렇게 여섯 명이었다. 식구가 많아서인지 할 일이 많았다. 먼저 공양 준비.

어간 스님·선방 스님·사교반·사집반·치문반·사미반, 그리고 법문준비·비구포살·사미포살 청소. 나에게는 조금 힘들었다. 아! 소임 미숙으로 참회도 몇 번 받았다. 하지만 도반 사이는 원만했다. 그래서 여섯 명 모두 동안거를 무사히 마쳤다.

이제 사집반이 되었다. 소임자에서 소임장이 되었는데,

한 번 경험이 있는 수두장이 되었다. 수두장 사집반 만학, 수두 소임자는 세 명이었다. 사교반 스님한테서 지적은 몇 번 받았지만 무사히 끝났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다각장. 그래서인지 조금 걱정이 되었다. 소임자는 두 명.

하는 일은 대중공양이 들어오면 시봉하는 일. 강주 스님·학감 스님·중강 스님·강사 스님·대교·사교·사집·치문 등이다. 아! 또 있다. 산행 갈 때 김밥 준비, 축구 울력 있을 때 다각 준비, 대중 울력 있을 때 다각 준비 등.

감자 캐기 울력이 있었다. 다각물은 라면. 처음이라서인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윗반 스님한테서 지적만 받고 끝났다. 이번에는 원족산행 김밥 준비다. 그전 소임자한테서 조금은 배웠지만 걱정이 되었다. 치문반 스님이 모두 동원되었다.

아침 일찍 시작되었다. 모두 150명분의 준비를 하였다. 김밥은 원만히 끝났지만 문제가 생겼다. 대교반 스님이 지적을 했다. 소임자인 나에게 책임이 많았다. 아침부터 치문반 스님들에게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화를 내었다. 언성이 높아졌고 고함도 질렀다. 치문반 스님들에게 미안하였다.

그날 저녁이었다. 공사시간에 찰중 스님한테서 참회를 지시받았다. 큰방에서 두 시간, 그 다음날 상강례 시간에 입승 스님한테서 또 참회를





지시받았다. 사교반은 한 시간씩  
이틀, 사집반은 한 시간씩 사흘,  
다각장은 지장전에서 일주일.  
이건 중참회다.  
그래서 참회제일이 되었다.  
대중 스님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참회를 마쳤다.

저의 소임 미숙으로 대중 스님  
모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소임 열심히  
보면서 대중 스님들 모두  
시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아이구 다리야”

종안宗眼 | 치문

찌리링, 찌리링!  
“네. 원주 시자실입니다.”  
“나 회준데 말이야, 시자 좀  
빨리 오라 그래.”  
전화가 끊겼다.  
똑 똑!  
“스님, 원주 시자입니다.”  
“동당스님께서 시자 스님  
찾으십니다.”  
조금 뒤 다시 전화가 왔다.  
화가 나신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불이 어떻게...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어.  
시자 좀 빨리 올라 오라고 그래,  
알았어?”  
다시 치문반 지대방.  
“스님. 동당스님께서 시자 스님  
빨리 오라십니다.”  
다른 스님이 목욕탕으로 가보라고  
그런다. 거의 뛰다시피해서  
(왜? 동당스님께서 화가  
나셨으니까.) 목욕탕에 도착해서  
큰 소리로 불렀다.  
“원주 시자입니다. 화엄전 시자  
스님 계십니까?”  
시자스님이 젖은 몸을 닦으며  
나타났다.  
“동당스님께서 빨리  
올라오라십니다.”  
“예, 알았어요.”

나는 다시 행자실로 돌아갔다.  
그날따라 우리 행자님들이 매우  
피곤했나 보다. 모두 누워 잠이  
들어 있었다. 기억으로는 누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드르륵!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전화 받은 행자 누구야?”  
“누가 전화 받았어?”  
어디서 많이 들던 목소리.  
바로 동당스님의 목소리가  
아닌가! 나는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예, 스님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 니가 받았어?”  
“내 말 전달했어, 안 했어?”  
“예,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밖에 나갔다가 오늘  
돌아왔는데, 방이 얼음 바닥이야.  
추워서 들어 갈 수가 없어!”  
동당스님의 불호령이 계속  
떨어진다.  
나는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합장하고 합장하고...  
“내가 그래 몇 번 전화를 하고  
했으면 너라도 올라와 봐야 할 것  
아냐! 그런데 한 놈도 안 올라오고  
그래 여기서 누워 자고 있어?”  
“방바닥이 얼음 바닥이야. 추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못된 녀석을 봤나!”  
“이런 놈을 상좌 받아서 뒤향해!”  
“그래 갖고는 중질 할 수 없어!”  
“당장 나가, 나가, 이 놈아!”  
나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어찌 할 줄을 몰랐다. 저러시다  
노스님께서 쓰러지시면 어찌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혹시 하는 그런 걱정이 나를 더  
몸 둘 바를 모르게 했다.  
순간 호통을 치시던 큰스님께서  
나의 뺨을 치셨다. 그래도 나는  
큰스님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스님께서서는 화엄전으로  
가시면서도 계속 되풀이하셨다.  
'스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러다 쓰러지시겠습니다.  
스님, 제발...'

머릿속에서 이 말만 맴돌았다.  
입에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나왔다. 그렇게  
화엄전까지 빌면서 올라갔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다음날 스님들한테서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다.  
부끄러웠다.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스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할아버지 같은 정을  
느꼈다.

수계하기 전에 법문도 청했다.  
두 시간씩, 이틀 동안 몸이  
편찮으신데도 재미있게 법문을  
해 주셨다.

"나는 말이야, 두 시간씩 쉬지  
않고 법문 해도 끄떡없어.  
알았어?"

이렇게 언제나 힘이 넘쳐나는  
스님이셨다. 그리고 은사 스님  
뵈러 대구 갔을 때도 그놈  
어디 갔냐고 물어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찡했다.

그 뒤 일년이 흘렀다. 날마다

공양시간마다 큰스님을 보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구, 다리야" 하는 소리가  
자꾸 내 귓전에 머문다. 그리고  
요즈음은 큰스님의 호랑이 같은  
모습을 못 본 것 같다.

스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 외출

해진海眞 | 치문반

머칠 쟈 편도선이 좋지 않다.  
대중 생활이 몸에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최하반이 갖는 일상의  
압박과 연이은 울력·간경·소임에  
몸이 많이 지쳤는가 보다.

어렵사리 마음을 내어 외출  
보고를 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  
"편도선이 너무 오래되어서  
합병증세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위험하지 않지만 꾸준히  
치료하셔야겠네요."

링거액에 해열제를 맞고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약국에서 처방하는 약이 워낙  
독해서(출가 이후 약물에 대한  
반응이 특히 예민해졌다.)  
망설이다가, 독기 없는 약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처방전대로 약을  
타고는 시계를 본다.

복귀 시간까지는 여유가 조금  
있다. 쌀쌀한 겨울바람에 옷을  
추스르고 인연 따라 흘러온 시골  
읍내의 사거리 연쇄점.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투박하다 못해 추리한 몰골.  
문득 시구 하나가 떠오른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  
고이 접어 나빌레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에 웃음이  
난다. 두툼한 목도리에 털실이  
나부끼는 모자, 무릎 아래를 살짝





걸치는 누비 동방에 복숭아 뼈를  
가린 행진, 그리고 숨을 두른  
방한화. 영락없는 산중이다.  
낮설지도, 그리 익숙하지도  
않은 내 모습.

‘중은 나이 팔십이 되어야  
믿을 수 있다’는 어느 구참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햇수로  
사년이다.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욕심일 수도 있다.  
뭔가 큰 변화를 바라기에는  
짧은 기간일 수도.

하지만 이진 아닌데,  
잘못 된 게 아닌가 싶다.  
인생이 연극이라면 뭔가가  
잘못되어 다른 이의 배역을  
대신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사형님이 생각난다.  
출가 인연을 맺어주신 사형님.  
“스님, 저 요새 왜 이런지, 신심도  
안 나고 출가 생활도 싫고.  
스님, 제 모습이 너무 낮설어요.  
머리 깎은 모습이 조금씩  
싫어집니다. 제가 갈 길이  
아닌가 봐요.”

“우리 해진스님도 드디어 진짜  
스님이 되거나 보네. 하하!”

모습을 바꾸고 삶의 터전을  
바꾸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막바지에서 마주친 혈벗은  
몰골. 주사를 맞고 몽롱해서인지  
사거리 근처 중국집에서  
풍겨나오는 춘장 냄새가 여느  
때와 달리 역하게 느껴진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제대로  
가는 것인지, 무명이란, 중생이란,  
깨달음이란...’

그토록 굳게 확신했던 삶의

이정표들이 하나 둘씩 바람에  
휘날려 부서진 간판처럼  
너덜거린다. 돌아볼 것도 없는  
삶 속에서 또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쉽 없는 혈떡거림에  
온몸이 휘청인다.

‘放下着!’

혈떡임을 쉬라는,  
치구심馳求心을 놓아버리라는  
조사스님들의 범문에 도반 스님의  
말이 떠오른다.

“편도선이요? 스님, 말 좀 그  
만해요. 해진스님은 말만 줄이면  
아픈 거 다 나올 거야. 하하하!”

소등시간 뒤로 지대방에서  
잡담을하다 경책을 받은  
1080배의 영험에 뻑뻑해진  
허벅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른  
시간, 복귀하는 버스에 오른다.  
온풍장치 열기에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노곤함이 밀려온다.  
인적이 드문 시골 버스 뒷 권  
의자에 기대어 조금은 편안한  
기분으로 스스로를 돌아본다.

‘다 알고 있는데 몇 부리고  
있구나. 조금 더 편하려고,  
조금 더 잘 보이려고...’

강원 입방 전 짧은 선방 생활을  
정리할 겸해서 신심나게 경서를  
읽다가 밀어닥친 인생무상의  
격감에 은사 스님께 달려갔다.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는  
말씀드렸다.

“스님! 인생이란 게 정말  
무상한 것 같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삶이 이렇게 허망함을  
말입니다, 스님!!”

어린 상좌의 가슴 떨린 감흥에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벼락같은 범문을 내리셨다.  
지금 생각해도 창피한.

“해진아, 고추밭 가서 고랑 좀  
일고 와라. 네가 고생을 덜 해서  
그런다. 부모님 밑에서 따뜻한  
밥에 주는 용돈 받아쓰고 철없이  
자라서 허망이니 무상이니 쉽게도  
나오는구나. 쓸데없는 생각 말고  
밭에 가서 일해라.”

그 날 하루 진땀나게 운력을  
하면서 많이 웃었다. 철없는 내  
모습에. 머리로만 사는 내 모습에.  
인연따라 지어 놓은 거짓 없는  
모습에 오늘도 상相을 내었구나  
싶다. 그 잘난, 말 많은  
게으름뱅이 상相을.

복귀보고를 하고 밀린 빨래를  
해야겠다. 관물함에 며칠째 쭈셔  
놓은 빨래감, ‘언제 빨까? 시간이  
없는데. 아, 안돼요. 저 빨래해야  
되는데.’

머리로 빨래하고, 입으로  
빨래하고, 여전히 두 손은  
그대로인 내 모습.  
차장에 비친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인연따라 정성스럽게  
사는 수 밖에는. 차곡차곡 밀린  
빨래를 하면서.

초라한 발걸음과 혈벗은  
그림자, 지어놓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겠다.

목구멍 가득한 열기로 인해  
잠시 사그라 들었던 가슴 한 칸의  
화두가 다시 떠오른다.

돌아볼 것 없는 짧은 삶의 화두,  
삶·사랑·해탈.



# 일일이 日日移移

용은龍隱 | 치문

조용한 새벽 도량석 소리와 함께 눈을 부비며 일어난다.

빨리 세수를 마치고 예불 준비를 한다. 예불 시간, 모두 줄을 맞춰 절을 하며 쇠종과 사물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가슴 한 가운데 고요함이 스며든다. 숨을 가다듬어 큰 소리로 예불을 시작한다.

예불문·「반야심경」·「금강경」·좌선·108배를 모두 마치면 새벽 간경을 준비한다. 조금 뒤 죽비소리와 함께 일제히 소란스러운 듯한 소리와 운곡이 맞지 않는 곡조로 간경을 한다. 나 또한 한 몫 킨다.

조금 지나면 수마睡魔가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인다.

‘그냥 자, 글 안 읽어도 돼. 편안하게 자...’

한 대 때리며 수마를 쫓아낸다. 약했는지 또 오고 자주 온다. 정말 무서운 존재다. 간경시간 내내 졸며 아무 생각이 없다. 부끄러운 일이다.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길게 느껴지는 새벽 간경시간. 분발하고 노력해도 늘 지는 나.

그래도 아침 공양은 한다.

‘졸아도 뱃속은 채워야지.’  
뱃속에서 덩달아 소리친다.

맛있게 공양을 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고무신을 닦는다.

다음 시간은 상강례. 이삼십 분 동안의 무릎공사, 생전 타보지 않던 스키를 타며 저린 다리를 붙잡고 식은 땀을 흘리는 나. 웬지 초라해 보이는 나.

‘정말 괴롭구만!’

다시 강의시간. 산통에서 번호가 적힌 막대기를 뽑으며

“외워보세요.”

“죄송합니다, 못 외웠습니다.”

속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경탁을 들고 서 있다.

한참 뒤, 수업이 끝나고 저린 팔을 어루만지며 한탄한다.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잠시 휴식시간, 도반들과의 차담시간.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떠들어 댄다. 몇 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오전 간경시간.

이쉬움을 떨치며 경탁에 몸을 맡긴다. 이 시간은 이상하게도 수마가 안 온다.

‘웃기는 놈이다.’

열심히 숙제를 하면서 생각도 하고 암기도 한다. 오전 간경시간은 한 시간이 일 분 같다.

조금 하다보면 사시예불, 예불 끝나면 사시공양. 또 뱃속에서 ‘기도를 마쳤으니 밥은 먹어야지, 많이 먹어’ 라고 떠든다.

공양을 마치고 여유시간에 세면과 세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리한다.

휴식 같지만 휴식 같지 않은

자유시간. 몇 십분 밖에 쉬지 못했지만 웃으며 오후 간경을 준비한다. 간간이 찾아오는 수마와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간경하고, 난자難字를 찾고, 필기하며 나름대로 공부하는 시간.

하루하루가 지나서 오늘이 왔지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좌선시간. 나의 머릿속을 정리하며 반성하고 보살피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이 제일 좋다. 죽비소리와 함께 소임시간이 찾아오면 분주하게 움직여서 일을 처리한다. 서투르지만 최선을 다한다.

저녁 공양시간이 다가온다. 빨리 일을 마치면서 공양을 한다.

설틈없이 바로 저녁 예불,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하루를 잘 보냈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부끄러운 일도 많고, 자신 없는 일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누가 대신 살아 주지 않는, 생방송 같은 나의 삶이다.

오늘도 분발하여 열심히 정진하면 내일은 더욱 더 빛나겠지 하고 다짐한다.

끝도 없는 생사윤회에서 계속해서 나를 찾아 갈 것이다.



## 광주 향림사 조실 천운큰스님



눈 내린 도심의 포교당.

조막손들이 힘겹게 쌓인 눈을 밀어내고 있다.

네모꼴의 시멘트 건물에는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고,

셔틀버스는 이미 시동이 걸려 있었는 듯, '빨리 빨리 타라' 고 소리친다.

그리고 사시 예불을 알리는 금고소리...

그 엄숙함 사이로 합장한 고사리 손들이 원력의 향콧이 가득한

향림사의 문을 열어주었다.



불교의 불모지였던 광주에서 처음 포교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의 절박한 심정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당시는 아직 비구 대처 싸움이 안 끝난 때야. 화엄사 하나만 정화가 되고 선암사·송광사·백양사·대흥사는 다 비구승이 들어간다, 나온 다하는 처지였거든.

그런데 화엄사에서 우리 노장님이 열반을 하셨어. 그래서 스님을 시봉하면서 주지를 겸했는데 인제 주지할 의무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수행하러 가야겠다 생각했지.

그런데 세월이 좋아져서 관광객이 절에도 오곤 했는데, 오면 술먹고 난리치고... 국민의 정서가 난세에는 허랑방탕한거 같더라고. 스님네들은 썩을대로 썩어 있었고. 정화를 잘 한거여.

그런 세상에 내 공부만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제일 포교가 안된 곳에 가야겠다 했는데 광주가 제일이었거든. 와서 보니까 신평사·흑룡사·덕림사 세 절만 조계종 절이야. 그래서 그때 돈 오천원 가지고 시작했지. 쌀 한 말에 삼천오백 원, 천오백 원어치는 연탄 때고.

연탄 때다 세 번이나 죽을 뻔 했어. 지금 용암사 주지가 그때 시간데 그 애도 그때 연탄가스로 혼도 나고, 그 뒤로 기름 보일러로 바꿨지. 그리고 전화도 한대 놓았지. 그때는 전화 한 대 있으면 엄청 대접 받는 때야. 그래서 신도보고 놓아 달라고 해서 놓았어. 내가 화엄사 있을 때 다니던 신도 한 분이 있어서 그 양반한테 의지했지.

원로가 되신 오늘날 까지 중생교화의 고삐를 한시도 놓치 않으셨는데 어떤 원력이 있으십니까?

내가 당시 종정이셨던 박한영스님께 출가를 했는데, 삼 년을 있다가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해서 정읍 호남 중학교를 갔어. 상당히 나이가 먹어서 학교를 간거야. 3학년이 못되서 6·25가 났어.

군대에서 군인을 모집하는데, 처음에는 지원제로 한다더니 나중에 강제로 데려갔어. 끌려가서 처음생긴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받고는, 1군·2군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부처님 덕으로 대구로 가게 되었어. 그곳에서 매주 일요일에 신부님이 종종 나와서 정훈교육이라고 하는데, 큰 스님 밑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얘기가 다 엉터리로 들려. 끝에 '아멘' 하라는데 나는 절에서 살았으니까 '사바하' 라고 했거든.

그게 싸움이 되었어. 그때 대대장이 대령인데 그이한테 데려가더라고. 그이가 "여기는 군대인데 왜 네 멋대로 '사바하' 하느냐." 해서, "신앙에 있어서는 누구도 간섭하면 안 된다. 대대장급 되는 양반이 그것도 모르느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수학도 하고 미술도 하고 영어도 하고 잘 하는 놈을 밀어줘야 할 것 아닌가" 했더니,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나를 데려갔어.

사령관이 나를 보고 웃더라고. 절에 사냐고, 산다고, 「반야심경」 할 줄 아냐고, 그래서 「반야심경」을 하니까 사령관이 합장을 하면

서 "스님 죄송합니다" 하는거야. 그 사령관이 통신사 사무실로 보내 주더라고.

그때부터 늘 영외생활을 하고, 상대하는 급수도 장성급이나 대령급이었어. 시간도 많이 남고 항상 넉넉했어. 그렇게 시간이 남으니까 고아원에 가고, 절에 가고, 책이 노상 손에서 안 떨어졌지.

고아원에 가니까 불교가 너무 포교를 안 해. 참선한다고 큰스님들은 산에 들어가고, 주지하는 사람들은 노름하고 고기먹고 술먹고... '내가 중노릇을 할 때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애기들도 절에서 키워줘야겠다' 결심했지. 다른 절에 다니면서도 이 얘기를 했어. "한 절에서 아이들을 조금씩만 키우면 전체로 보면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 불교가 좋은 일도 하고 또 포교가 되지 않겠느냐?" 옳다고 하는 스님도 있었고, '중노릇도 힘든데...' 라는 스님들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토론이 많이 되었어. 그때도 좋은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포교하는 방법이 신통치가 않았어. 연구를 해서 하는게 아니라, 신도가 오면 맞이하고 불사하고, 초하루서 초삼일까지 기도나 하고, 그렇더라고.

신도는 엄청 많은데 포교가 안 되니까 당시 자유극장이 절 것이었는데 다 넘겨 먹고 나중에는 능인학원만 남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어.

그리고 그때는 열 명이 군대에 가면 그날 다 죽어버리는 처절하



고 곤욕스러운 시기였어. 좋은 아들 딸들이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데, 후방에서는 술 먹고 계집질하고... 스님네들이 교화를 해야 하는데 스님네들도 그런 식으로 살더라고. 중정 스님을 모시고 큰스님네들을 모시고 살다보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제.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않게 사는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여. 그래서 난 뭐 검소하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불도 가다가 어두우면 켜고 밝으면 끄고, 남들이 보기에 뭐 스님은 시간을 맞춰 전기를 끈다 하는데 그것 아니여. 물도 마찬가지로. 한 모금 더 먹으

궁한 줄도 몰랐고, 그래서 나는 평생 부처님 덕으로 하나도 궁색 없이 살았어. 부처님 제자라고 하니까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 군에서도 대접을 받았어, 제대하고 나와서 6일 만에 절로 와 버렸으니까. 세속하고는 맞닿 안해.

사람이 쓸 것은 얼마 밖에 안 돼. 먹는 것도 더 먹어 버리면 병폐가 되고, 옷도 더 입어 봐. 이 우주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제법諸法이 공유하고 있잖아. 그 제법이란게 뭐여. 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아니여? 내가 그 중도中道를 못 잡아 버리면 그냥 죽어 버리는 것이여.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중도를 잘 잡아가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여?

오늘날의 향림사가 있기까지는 스님의 근검절약정신이 바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질 풍요의 시대를 사는 수행자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오.

사람이 쓸 것은 얼마 밖에 안 돼. 먹는 것도 더 먹어 버리면 병폐가 되고, 옷도 더 입어 봐.

이 우주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제법諸法이 공유하고 있잖아. 그 제법이란게 뭐여. 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아니여? 내가 그 중도中道를 못 잡아 버리면 그냥 죽어 버리는 것이여.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중도를 잘 잡아가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여? 중도를 잘 잡아가는 것이 인간이여.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 영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 산다고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지혜를 나쁘게 쓰냐 말이야.

면 안 되는 것이니까 덜먹고, 밥도 그렇고.

잠도 자 봐. 그 시간 자면 딱 맞지, 더 자면 안 되는 것이여. 더 누우면 뭐해. 승려가 더더군다나. 시간이 늘어져버리면 저 지옥아귀로 가는 것이여. 시간이 아까운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이여. 수행인을 떠나서, 수행을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 그냥 생활을 일여一如하게 하면 되지. 부처님이 한결같은 생활로 지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여.

나는 적은 스님들하고 안 살아봤어. 총무원장·권상로 박사·포강 박사, 우리 스님만 해도 종단 만든 양반이니까. 그리고 박한영스님·방한암 스님, 이렇게 전부 큰스님하고 살아봤어. 큰스님하고 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해. 그렇게 자라 나서 용돈 궁한 줄도 모르고 의복

평소 지계를 강조하시는데, 깨달음만을 법칙으로 삼는 선불교에서 지계의 중요성은 어떤 것인지요.

부처님 말씀 가운데 선禪도 있고 교敎도 있고 주력도 있고 염불도 있고 방생도 하고 참선도 다 있는 거 아냐? 계행을 지키려 하면 안 돼, 알겠어?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란 말이야. 계행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럴 것이 뭐 있어. 내가 그 안에서 생활만 하면 돼. '나는 율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란 것은 하고 그뿐이야.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몸과 입과 뜻이거든. 그 속에 주인공이 들은 것을 모르고 상대를 만나면 좋은 짓 나쁜 짓을 하고, 윤회에 걸리는 것을 모르니까 악업에서 윤회하고...

중생계는 그래서 좋은거야. 조



금만 잘 하면 대접을 받잖아. 중생 계는 탁하니까 내가 고고하게 살면 대접받고 마음대로 살잖아. 부처님은 세상을 손바닥 보듯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 안 지키면 승려가 아니여. 수행이라는게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 어긋난 짓은 하면 안 돼. 부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

오염汚染으로 육체를 갖고 육체를 위한 짓을 했기 때문에 중생이 된 것이여. 정신의 생각대로 했다면 진작 부처노릇을 했지.

아,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왜 지금까지 굴러왔냐 그 말이야. 부처 속에 왜 못 들어가고 있냐, 그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솔찬히 멍청하고 솔찬히 게으름을 피었던

도 「열반경」을 보다가 깨달은 분이 셨거든. 역대 큰스님들이 경을 보다가 많이 깨쳤지. 꼭 선만 해가지고 된 것 아니여. 육조스님도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고 해서 경에 의해서 성불하다 보니까 후인들이 대단하게 보는 거지.

그런데 그 상좌분들이 수행하다 보니까 간화선이 더 좋겠다, 그래서

계행을 지키려 하면 안돼.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란 말이야.

계행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럴 것이 뭐 있어. 내가 그 안에서 생활만 하면 돼.

...부처님은 세상을 손바닥 보듯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 안 지키면 승려가 아니여.

수행이라는게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 어긋난 짓은 하면 안 돼.

부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말라고 했거든.

까 삼시 세 때 예불 올리면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나머지 시간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지. 좋은 일 할 것이 얼마든지 많은 이 넓은 세상에 남은 시간도 활용을 못해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야. 노력 않고 불로소득으로 먹고 살면 얼마나 큰 죄야. 그러니까 경전 보고 참선하고 염불 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생각해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몸이 한 해·한 생·한 겁을 살아온 것이 아니야. 생각해 봐. 시조가 있단 말이야. 나 위에 할아버지 한 분만 빼도 내가 존재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셨어. 이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네가 원래 있었다고 했어. 오랜 세월동안에

말이여. 다행이 이 몸을 받아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 좋은 스승도 만났잖아. 지금은 다 먹을 것도 주지. 입을 것도 주지, 잘 자리·이부자리 주지, 심지어는 똥간도 치워 주지. 휴지도 푹푹 말린 것으로 다 대 주지. 이런 속에서 못하면 사람도 아니지. 아 이런 좋은 세상을 만나서 뭐라 몸을 더럽혀. 몸도 깨끗이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장소에서 그렇게 살면 좋잖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타성이여. 게으름에 젖어서 그런 것이여.

**화두선에 대한 재고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기에 상관없이 화두선만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요.**

인도나 중국을 봐도 간화선만 해서 성불한 것은 아니지. 영각스님

간화선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 것이여. 그래서 염불을 해도 좋고 주력을 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나도 기도를 해서 성과를 많이 봤어요. 화엄전 주지를 할 때, 탑전에 가서 시간이 나면 참선하고 기도하고, 제자를 데리고 강의도 해줬지. 중요한 것은 불법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 이것이 중요한거야.

불교 수행 방법에서는 간화선이 가장 요체라고 봐야지. 가장 빠르게 되는 것. 뭐든지 일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념이 안 되면 망상이 많다는 것이고. 일념에서 무념으로 들어가려면 망상을 덜면 바로 무념이 되더라고. 근데 포교한다고 하면 망상을 많이 부리잖아.

그래서 포교를 하더라도 참선을 할 때는 모든 망상을 버리고, 참선을 안 할 때는 안 하는 자세로 들



어가라, 그것을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어. 예를 들면 오늘 학생법회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학생법회 하는 요체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몇 사람한테 시켜서 만들어 놔라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잊어라 이 말이야. 잊어 버리고는 앉아서 공부하는 공부대로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되면 법문해 주고. 그런데 그 놈에 얽매여가지고는 잘하네 못하네 구구한 소리 늘어놓지 말라 그 말이지.

망상은 될 수 있는 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야 돼. 예를 들면 스님이 이렇게 나와 만났는데 저기 가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 안 돼. 그것은 연정(戀情)이여. 정으로 가서 맺어버리면 안 돼. 연정은 생각하는 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쉬는 것이 공부여. 모든 것을 쉬는 것이 공부여. 나는 그렇게 살았어.

**상좌를 대하실 때나 신도들을 만나실 때에 신분 직위를 막론하고 늘 만나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큰 뜻이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는 물질적인 차별이 없어, 무엇이든지 깨끗하면 돼. 사람도 깨끗하면 다 상대해 줘. 예를 들면 노숙을 한다든가 허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은 도와도 상대해서 도와주는 어렵거든.

부처님 말씀도 그렇잖아. 만법이 윤회한다고 하셨거든. 잘 되면 좋은 데로 가고 잘못되면 나쁜 데로 간다. 그래서 저 놈도 좋은 쪽으로 오게끔 내가 마음만 돌려 주

는 것이거든.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놈에게 달렸지. 성불을 할 수 있는 기연을 만들어 주지는 것이지.

그래서 전라남도 와가지고 군포교·교도소 포교·학생 포교·일반신도 포교를 허는데, 근데 인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아무리 일러줘도 자기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



람이 있더라고. 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괘시 받는 사람들, 장애인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괘시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선행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해서 노인정을 짓고 장애복지관을 짓는 거여. 그곳에서 폭 쉬고 공부도 배워가라고. 나중에는 학원도 만들어줄라고 해. 내가 살아 있는 한에는 힘이 되면 그것까지 만들어줄라고 하는데...

또 노숙하는 사람들, 또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 점심 한 끼라도 먹이는 게 좋겠다 해서 점심을 150명쯤 먹이고 있어. 근데 자기 들끼리 짹 짜 버리더라고. 나는 다 와서 누구든지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거들만 먹으려고 다 못 먹게 하더라고. 그래서 엇그제 가서 뭐

라고 했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 먹여 살릴려고 허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

할 것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는. 그래도 부처님한테도 삼난(三難)이 있다고 하잖아? 찾아오지 않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전지전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부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실제 해 보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절대 제도가 안 돼.

**부처님 제자로서 깨끗하고 청정하게 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중 노릇입니까?**

대중생활을 잘하면 돼. 이런 데 나오게 되면 속인들을 많이 상대하게 되지? 중노릇 적게 한 사람은 쉽게 속가에 빠지게 되지.

사미승은 마실집이나 세속집은 절대 가면 안 돼. 저도 동생집이 가까이 있어도 안 가요. 암만 무슨 일이 있어도 가달 안해.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거든. 절대로 마실집에는 가서는 안 된다, 절만 다녀라, 그 말이지. 어쨌든지 스님네들하고 상대하고 그리고 대중생활을 많이 해라, 그리고 큰 절만 다니지 말사에는 가지 말아. 큰스님한테 가서 공부하고 대중생활하고. 학인 때는 그렇게만 하면 생활 잘하는 거여.



## 침묵沈默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이 강당에 모여 서로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강당으로 나가시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희들은 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너희들은 출가한 사람들이니 당연히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의 침묵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니라. 비구들은 한 자리에 모이면 두 가지에 힘써야 한다.  
하나는 법을 논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이의 침묵이니라.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증일아함경」 제34, 칠일품 1, 2-735 가운데서





## 秋曹溪

석원石原 | 치문

조계산 송광사는 가을에 한껏 자기의 멋을 부린다. 마치 온 산이 아름다운 수채화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번진 듯, 매우 형용하기 어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곳의 단풍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맑고 청아하게 해준다. 길가에는 천연의 고급 양탄자를 깔아 놓은 듯한 가랑잎을 밟으며 걷고 있노라면, 산도 붉고 땅도 붉어 우리의 몸도 그 붉음에 물들 것만 같다.

우주가 나의 집 큰 도량이라  
눈을 열어 보는 곳마다 청량해지네  
사람이 물들지 않았으면 탁한 데 있어도 오묘하며  
마음을 스스로 비웠으니 탐욕은 오히려 향내이네  
침침한 산 모습은 천고에 푸르는데  
모든 세태는 하나의 참된 광명일세  
구름이 개이고 비가 그쳐 가을바람 소슬히 부니  
만리 푸른 하늘에 붉은 해가 길구나

참으로 조계산의 가을 풍경에 어울리는 선시라 혼자 간직하고 있기 너무 아까워 인용해 보았다. 산도 붉고 감나무의 홍시도 붉고 절집의 단청도 붉으니, 그 가운데 이내 몸도 붉게 물들어 눈을 여는 곳마다 청량해져서 참된 광명이 되기를 기원한다.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의 멋진 조화로움에 가을바람마저 소슬히 부니, 우리가 이를 내면세계에 관조하여 붉은 아마도 조계산의 가을풍경이고 싶은 까닭인가보다. 부처님의 복과 덕은 무량 무변하다더니, 출가한 인연도 감사한데 절집에 들어와 이러한 만복萬福을 누림에 좀 더 수행자로서의 여법함과 대중 속의 순리에 회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가을 단풍은 아마도 멋진 사자후요, 청명한 하늘은 팔만사천의 법문을 대신하는 것일까?

내 마음의 평화로운 향기가 널리 번져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로움에 물들이 대승의 뜻이라면, 멋진 조계산의 가을풍경은 우리로 하여금 청량함에 물들게 하는 하나의 참된 광명인 것 같다.

온갖 시비분별과 탐욕과 성냄을 이곳 앞에서만큼은 비우고 싶고 지친 몸과 피곤한 영혼의 휴식처이고 싶다. 그리고 한 점의 맑은 바람, 연산봉에서 불어오니 온갖 곳에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보조골에서 흘러오는 계곡물이 가랑잎들에 물들어 연붉어져 온갖 것이 넉넉하고 포근하게 비친다. 속가에서는 온갖 것이 한가위와 같아 하였다면 조계산 송광사는 구름 개이고 비가 그친 청명한 가을이었으면 한다.

온갖 형상이 덧없고 허무한 줄 글귀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계산 송광사의 가을은 영원하였으면 하고 욕심을 부려본다.

선시에 '탐욕과 마음을 스스로 비워 오묘한 향기 발하라' 라고 했는데 나는 벌써 탐욕과 시비분별을 내었으니 업장이 두터운 중생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 「서장」을 배우면서

일조日照 | 사집

“무릎이 아파서 죽겠구마이!”

무릎이 무지무지 아파서 공부에도 방해되고 대중생활에도 문제가 많았다. 윗반 스님한테서 한없이 많은 지적과 잔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가장 불쾌한 이야기는 “일조스님 선방에서 열 시간도 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면 참선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말이었다. 이와 같은 말을 자꾸 들으니 ‘생사대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슬픈 생각 때문에 마음이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였다.

출가하기 전 러시아에서 선禪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요즈음에는 대혜스님의 「서장書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책이 참 재미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대혜스님께서 참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실 때에 ‘가부좌’나 ‘반가부좌’ 같은 말을 안 쓰신 것이다. 어쨌든 아직까지 내가 읽은 내용 가운데에는 없었다. 지금은 진소향처사님이 대혜스님께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보고 있다. 그 많은 처사님들이 다 취직하기도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도 했기 때문에 선방에서 스무 해 동안 열 몇 시간씩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고 말고...

그래도 수행에 많이 나아갔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 해 동안 선방에 다니는 수많은 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나아갔다고 본다. 선방에도 일대사를 마친 수행자들 있기는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앉아 있는 것만 참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마음 속에 있던 천근만근 부담이 사라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걱정하지 않는다.

이상한 것도 말해야 할 것 같다.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책을 읽어도 저마다 그 책을 다르게 본단 말이다. 보기를 들면 내가 책을 볼 때엔 ‘화두를 들면 알음알이로 사랑하고 교계하지 말라, 밖으로 찾는 마음을 내지 말라,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정진해라, 잊지 말라, 외도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선방에 들어가서 열 몇 시간 앉으라’는 내용만 보는 것 같다.

이상하지 않나요?



일조 스님은 러시아 사람으로, 송광사 강원에 들어온 지 세 해째가 됩니다.



---

#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

도해度海 | 사집

## 美!

우리 둘레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불을 드릴 때 대중이 일시에 “지이썸(至心)”하고 내는 그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또 예불을 드리기 위해 안행雁行을 하고 각 전각殿閣에 예를 올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큰 방에 앉아서 저 침계루의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공양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열린 문을 통해 큰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상쾌한 공기가 아름답습니다.

간경을 하다 조금 열려 있는 봉창 사이로 날리는 눈을 보면서 온통 하얗게 변한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문을 열면 눈앞에 펼쳐진 저 조계산의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아름다웠고, 심지어 댓돌에 가지런히 놓인 털신마저도 아름답습니다.

업장소멸을 위해 미리 법당에 올라와서 절을 하고 있는 이들도 아름답습니다.

삼경 이후에도 잠자지 않고 그래도 오직 몇 분이라도 자리 틀고 앉아 있는 이들, 불이 꺼지지도 않은 강의실에서 옥편을 뒤적이는 이들도 아름답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전산실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출력하는데 인쇄범위를 지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계속해서 종이는 인쇄되어 나오는데 그만 자기 분량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당황해서 “어! 어!” 하면서 프린터기 위의 누를 수 있는 스위치는 모두 눌러대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종이가 계속해서 나오자 마지막으로 그냥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전원 스위치!

프린터는 멈추었고, 그제서야 안심을 하던 스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다 도중에 멈춰버린 종이 한 장을 꺼내기 위해 프린터를 하나씩 분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억지로 종이를 꺼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 프린터는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 음!

또 한 스님이 전산실에 들어 왔습니다. 방학 때라, 모두들 문화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도 보려고 했는지 “야! 이거 재밌겠다!” 하고 하나를 골라서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선 연결 상태도 보고 부산을 떨더군요.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시디CD를 꺼내어 확인을 했죠. 그때 모두들 뒤로 넘어졌답니다.

헉! ‘장기박사 5.0’이라는 게임용 시디를 넣고 영화를 보려고 했으니...

무식하다 못해 기계문명에 익숙지 않아 터져 나오는 그 순수함들도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 醜!

추한 것들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늙음·죽음·우울·슬픔·고통·불쾌·절망·짜증·분노·아픔·이별 등등.

또 오온五蘊이 내던져지고, 모두가 삶의 형태에 따라 파괴되기도 하고, 수행자랍시고 이 몸뚱이를 어떻게 해



보려고 사대四大로 분석하고, 오온五蘊으로 공중분해시켜 그 무상無常함을 살피기도 하고, “무無우~”하고 화두란 것도 잡아보기도 하지만 어느 샌가 두 다리 짝 펴고, 침은 큰방 바닥에 고일 정도로 떨어뜨리고, 즐고 있는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정말 한심하고 불쌍하고 추하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잠은 얼마나 잤던지 이젠 그 시간이 되면 꼭! 자야 하고, 밥은 또 얼마나 먹었던지 발우에는 반드시 그 양을 먹어야 하루를 잘 산 것 같아 흐뭇해 하니...

왜 출가했냐고 누군가 물어오면 그럴 듯한 변명으로 포장해서 환희심나게 답해 주면 존경과 감동의 눈빛으로 쳐다보니, 괴롭다고 해야 할까? 이러한 괴로움 덩어리들이 왜 생겼을까?

부처님은 이 괴로움 타파를 위한 해결방법을 주셨습니다.

### 사성제四聖諦!

괴로움(고苦), 괴로움의 원인(집集), 괴로움의 소멸(멸滅), 괴로움 소멸에 이르는 길(도道).

십이연기十二緣起! 이 괴로움 노사老死는 태어남(生生)을 말미암아 생겼고, 이 괴로움의 소멸은 태어남을 소멸시킴으로서 없어집니다. 이 태어남은 무엇을 원인으로 합니까? 이 태어남은 존재(유有)를 말미암아 생겼고, 이 태어남의 소멸은 존재를 소멸시킴으로서 없어집니다.

그럼 괴로움과 태어남, 존재 등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 팔정도八正道!

불교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삿된 무리 배들의 견해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정견正見을 가지고 출세간出世間에서는 바른 선정으로 나아가야 하고, 세간世間에서는 바른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행위들·올바른 말들·올바른 생각들을 해야만 정명正命이 되고, 이러한 출세간과 세간의 올바른 것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해서 정념正念으로 부지런히 정정진正精進한다면 다시 바른 견해가 생겨 결국 무시이래無始以來로 이어져 온 무명업장無明業障이 타파될 것입니다.

### 낙필落筆!

사성제四聖諦 안에 팔정도八正道가 있고 십이연기十二緣起 안에 다시 사성제四聖諦가 있고 팔정도八正道가 십이연기十二緣起 안에서도 보이고... 아, 헛갈린다.

차라리 역경계逆境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없애 버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역경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없애는 재미라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역경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예 안 보고 살아도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것들 속에 묻혀 살다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급 아니면 안 되는, 웬만한 것 아니면 사용하지도 싫은 마음이 듭니다. 비록 털신은 신었지만 그 속의 양말은 아주 질 좋은 것으로 신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내 모습에, 외면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 자신에 실망만 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추한 것들보다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차라리 추했다면 공부한다는 맛을 가져볼 수 있었을 텐데.

아름다운 것들은 괴로운 것인가? 何以故 我以苦?



# 동안거를 시작하며

진봉珍奉 | 치문

조계산의 적막한 숲 속의 나무들도 어느새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극성을 부리고 있군요.

수행자는 모름지기 추위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손과 발이 시려도 결코 따뜻한 불을 생각하지 마라' 하셨는데 무엇으로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의 한 없는 분심이 일어날 때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마라'는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왜 참고 인내함으로써만 수행의 근본을 삼아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4년이라는 대중생활을 해야 하는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조금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입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도끼가 된다'고, 늘 아침공양 끝에 하는 구산스님의 7바라밀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도반이라는 것이 그냥 도반이 아니고 모르는 부분을 잘 알려 주어서 도반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탁마해 가는 것이 진정한 도반의 우애일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들까를 수행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웃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의 강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하반에 있어서도 아랫반 스님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참회를 준다고 해서 당장 고쳐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짚어 주고, 거기에 따른 정책과 질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늘 말없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 보는 스님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잠깐 쉬려고 지대방에 들어가면 차담을 들고 미처 정리를 못한 채 방이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반 어떤 스님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안거 내내 지저분한 지대방을 말끔히 정리정돈하는 모습을 보고 대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요즘은 소임 때문에 차도 한 잔 나눌 여유가 없지만 늘 차 한 잔을 나누고 싶은 좋은 도반 스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말없이 수각장이나 지대방 들어가는 문 입구에 흐트러진 신발들은 가지런히 정리정돈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부처님 밥 먹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가끔 생활하다 보면 몸이 정말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반 스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아픈 것도 잊고 운력을 하다보면, 나약한 나의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 몸도 마음도 가뻐해 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짜증날 때마다 옛 스님들을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동안거를 잘 보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강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더 활기차고 부드러운, 그러한 분위기를 가진 송광사 강원으로 바뀌어갔으면 합니다. 이러한 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하고 짜증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좋은 말로 건의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같이 부처님의 제가가 된 소중한 인연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화로써 지혜를 만들어 가면 언젠가는 좋은 강원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 얼굴

고웅古雄 | 사교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다. 더구나 그 얼굴이 자신의 삶에 깊이 반영되어 영향을 주어왔다면, 그 형상은 더욱 잊혀질 수 없는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그런 얼굴이 하나 있다.

국민 학교 시절,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여름날이었던 것 같다. 그날 나는 여느 때처럼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골목에서 문득 낯익은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화장실을 청소하던(변소 치던) 특유의 직업이 존재하던 시절의 모습으로, 내가 멈춰선 걸음 맞은편 담벼락에서 검은 작업복을 입은 커다란 등짝 하나가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왜 그 모습에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상념에 잠겨 그 작업의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평소 같으면 오히려 피해갔을 텐데 말이다.) 다만 기억에 남는 것은 '왜 남들이 싫어하는 저 일을 저 사람은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상념에 잠겨 있던 나에게 선뜻한 그림자가 느껴졌다. 순간 고개를 들자,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동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몹시 자존심이 상한 듯,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있던 어린 소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이어 괴성을 질러대며 핏발선 눈으로 후려칠 기세를 더했다.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 몰랐다. 정신없이 뛰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수돗가에 있던 엄마를 발견하고는 치마폭에 달려들어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시퍼렇게 부풀어 오른 나의 뺨을 놀란 눈으로 어루만지던 어머니는 사건의 전말을 듣자, 분연히 나의 손을 잡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는 아직 그 아저씨가 등짝을 보인 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아저씨 뒤로 다가선 어머니는 곧 그를 돌려세우고는 치마폭에 숨어 있는 나를 지목하며 단호하게 따져 물었다. 아저씨는 한 순간 무어라 변명을 하는 듯했으나 곧이어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인분을 푸던 바가지를 깨어져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주먹을 들어 벽면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씩씩거렸다. 기세에 놀란 어머니는 뒤로 물러나며 오히려 겁에 질려 나를 감싸 안았다. 그 바람에 순간 아저씨와 나의 눈은 정면으로 마주쳐졌다.

아뿔싸! 아니었다. 어이없는 얼굴로 바라보는 이 사람은 좀 전에 내 뺨을 때렸던 그 아저씨가 아니었다. 나는 너무 놀라 눈만 크게 뜨고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말은 입안에서만 뱅뱅 돌뿐 아무 소리도 나오질 않았다. 놀라기는 아저씨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았다. 오히려 그 아저씨가 나의 표정에 더욱 당황한 듯했다.

조금 뒤, 다시금 따져드는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사태를 알았다는 듯 아저씨는 어머니 몰래 나에게 빙그레 미소를 보내왔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도 정중히 사과했다. 다시 한번 아저씨가 어머니 몰래 나에게 안심시키는 눈인사를 보내주고 나서야 내 눈에는 눈물이 고이며 고마움에 답례하는 미소로 답례해 줄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갔다. 시간 속에서 나는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일과 난처함과 억울함을 만나면서 때론 가해자로 때론 피해자로서 부딪치며 살아왔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성냄과 성급한 해명과 반격 등이었다. 그러나 곧 기억 속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 빙그레 웃음을 짓고 있으면 나도 곧 그 얼굴을 따라 미소를 띠곤



---

했다. 이러한 내 마음을 모르는 상대방들은 어느 순간 일거에 후퇴(?)하는 듯한 나의 행위에 말 못할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하기도 했다.

그렇게 늘 나와 함께 같이 했던 그 얼굴은 나의 출가와 함께 깊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듯했다. 그러나 출가 뒤, 그 얼굴의 근본정체를 확연히 알게 했던 너무도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경외심은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출가의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남보다 늦게 시작한 행자생활이었기에 부처님의 참 모습에 보다 깊이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으나, 뜻만 같지 않아 늘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러다 직지사에서 사미계를 받던 중에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출가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나 갈등해야 하는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다.

너무도 힘든 갈등의 시간이었다. 결국 출가 생활을 그만두더라도 원이나 없이 하자는 마음에 사미계를 받은 뒤 참회의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하는 동안 미처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던 무수한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흩어져왔다간 사라져갔다. 그동안 비교적 바르게 살아왔다고, 과히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오던 모든 일들이 너무도 새빨간 거짓말임을 상세히 알게 되었다.

회한의 눈물이 끝없이 흐르는 속에 무릎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해도 그 동안의 죄과에는 천만분의 일에도 미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저 이 자리에 이렇게 나를 존재케 하는 것만도 너무나 크나큰 부처님의 가피력임을 감사하는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고통으로 마비된 오른발을 제쳐 놓고 왼발만으로 움직이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나갔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 고통이 잊어지더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잠시 옆드려 있다가 갑자기 부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들게 되었다. 아! 줄줄 흐르는 눈물이 온 눈앞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물 줄기 사이로 보이는 부처님은 분명, 분명 그 아저씨의 얼굴이었다.

‘아, 부처님, 부처님!’

기어이 나는 엉엉 울며 불단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가고 말았다. 불단 위에는 너무도 오랜 시간 나의 가슴 속에 자리했던 그 얼굴, 그 얼굴의 부처님이 자애로운 웃음을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늘 부처님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날까지 살아오고 있었으면서, 그 시간까지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 삶을 영위해오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그 사실을 모른 채 또 다른 부처님을 찾고자 갈망하며 살아왔던 것이었다.

오늘도 나는 건강하게 강원생활을 하며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고 있다. 큰방에서도 만나고 지대방에서도 만나며, 또 포행길의 일주문 앞에서도 만나서 그들의 가피력을 받고 있다. 곧이어 해재를 하면 산문 밖을 나가 터미널이나 공항에서도 수많은 부처님의 얼굴을 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은 내가 견성하는 그날까지 나의 스승으로서 내 가슴 속에 깊이깊이 새겨질 것이리라.



## 토성칠교土城七橋, 파헤쳐진 전설

이 글은 지난 구산대선사 추모법회일에 사부대중과 함께 다녀온 토성칠교에 관한 글입니다. 송광사가 가까이 자리한 북다리를 비롯한 여러 마을에 걸쳐 모두 27홀을 갖 추게 될 골프장 건설이 현재 벌목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성칠교 가운데 제1교가 허물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그 터에 정혜사 편집실이 가보았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골프장 준비작업으로 나무들을 베어버려 황량해진 토성칠교 터

걸음을 멈추고 섰다. 파헤쳐진 산에서 흘러내린 흙더미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 위로 아직도 포크레인의 삽이 닿아야 할 붉은 깃발이 산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었다. 주지 스님은 잠깐 그 쪽을 침묵으로 응시하며, 숨죽여 기다리는 신도님들과 스님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다.

“지금 이 소나무는 우리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조금 전부터 벌벌 떨고 있더군요.”

때맞춰 가지가 바람에 흔들거리자 몇몇 보살님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주니 감격해서 떠는 게지요.”

“이 산들처럼 자신도 파헤쳐져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와 준 여러분들이 반가운가 봅니다.”

때맞춰 부는 바람과 골프장 건설로 인해 드러난 토성칠교의 진면목(?)이 어우러져, 멀리 아미산을 가리키는 손끝에서 당장이라도 신장神將이 흙무더기를 부려 놓을 것만 같았다.



주지 스님의 법문은 마법의 주문처럼 여러 숨겨진 전설들을 열어나갔고, 그 전설의 끝은 이렇게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민둥산 위를 몰아치는 맞바람으로 얼굴에 부딪혀왔다.

#### 토성칠교에는 주인이 없다

“스님, 저 기억나시는지...”

“스님이 행자였을 때, 왜 저와 콩줄기 광고를 찍었던...”

알고보니 복다리 마을의 이장님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복다리에는 골프장 건설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 옛날 보조스님께서 도포자락에 흙을 담아 계곡을 메웠다고 해서 ‘복다리(복교卜橋)’ 또는 ‘흙으로 메운 다리(복토다리)’가 줄어 ‘복다리’라고 했다는데... 보조스님의 법을 기리기 위해 날마다 아미산에서 송광사에 이르는 길목인 이 토성칠교의 칠흙 같은 밤을 나뭇가지에 명주실을 묶어 밝혀 드렸다고 한다.

얼마나 무량한 복덕이었을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 칠월칠석이면(칠교라서 칠월칠석에 이런 전통이 생겼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목에 명주실 꾸러미를 걸고 무병장수하기를 빌며, 지신밟기와 같이 ‘토성칠교 밟기’를 해마다 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성칠교는 보령재의 울창한 수림 속에 묻혀 그저 잘 닦은 산길로나 전해지다, 역설적이게도 포크레인의 삽날 아래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아마 먼 훗날이면 골프장의 제27홀, 농약이 뒤범벅이 된 잔디 사이로 이런 풋말이 붙어 있을지 모를 일이다.

‘여기는 고려시대의 고승인 지눌스님이 도포자락에 흙을 담아 골짜기를 메워 만들었다는 전설 속의 토성칠교가 있던 자리이다. 지금은 사라져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씩씩하게 밟았다. 여기저기 벌목된 나무들이 쌓여 있었고, 둘레의 모든 산들은 매서운 북풍 아래 그대로 벌거숭이였다. 그동안 정작 송광사에서 토성칠교는 노스님들의 잊혀져가는 기억 속에서나 바래져 가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조차 그냥 잘

닦은 산길로나 알고 있었던 토성칠교.

그 적나라했던 무관심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 이 벌거숭이의 산하山河. 그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저 소나무 한 그루 앞에 부처님의 단을 모시고, 사부대중이 일심一心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오랜 동안 빈 집이었던 이 곳에 다시 주인이 돌아온 듯, 매운 겨울바람 사이로 다시 소나무가 몸을 떨며 일어서는 듯했다.

#### 건너보니 부처님 세상

‘보조국사 토성칠교 주변도’를 펼쳐놓고 송광사 박물관장이신 고경스님과 함께 대략 두 시간쯤 답사를 시작하였다. 물론 스님의 손가락 끝을 따라 자세히 표해 놓은 각 유적지들을 훑어보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부처님의 가피력에 점점 혼숙되듯 조금씩 감동으로 젖어들었다.

“지도상으로 보아도 27번 지방도에 비해 거의 일직선으로 아미산에 이어지고 있으니 선조들의 탁월한 지혜를 엿볼 수가 있지.”

이렇게 박물관장 스님과 함께 머나먼 전설로 여행을 시작하였다.

송광사에서 보조스님께서 행장을 꾸리기 시작하자 각 암자(지도에는 송광사 근처의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에서 흩어져 있던 신장神將들이 버리에 딸려가는 그물눈처럼 스님의 도포자락 아래 모여들었다. 물론 스님처럼 흙 한줌을 쥐고 따라 나서니, 훗날 골프장의 머리가 될 가재를 넘었다. 그래서일까, 왜 그리 까마귀가 울어대던지, “휘이 휘이!” 쫓아도 다시 몰려드는 저 악다귀들!

“아따 스님, 목 마르요. 가진 물도 없으니 조까 쉬었다 가잠게요.” 그러자 스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지팡이를 쿵! 땅에 짚으시니 그곳이 토성칠교 초입에 있는 ‘참샘’이라. 그 물맛이 천하일미라 ‘참!’ 하고 감탄하였다 하여 참샘이라나.

하여튼 건너편 등계산 보령사(지금은 터만 남아있다)의 목탁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고, 어찌 된 것이 내 리막이다 하면 급한 오르막이고, 어찌 골짜기는 이리도 많은지... 여기서 스님께서 흙을 뿌리시니 한 골짜



기가 메워져 판판한 길을 이루고, 다시 뿌리며 다시 한걸음. 그때 오늘날 보령 저수지의 방둑 안에 묻혀 있을 석탑이 달려와서 통곡하며 아뢰기를 “스님, 저는 어찌 부처님의 법을 받고 태어났으나 이렇게 후대의 삼날에 파묻혀 죽은 송장 노릇을 해야 합니까?” 그때 근처에 있던 석불이 달려와 “이놈아! 나는 부처님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이 가사 한 벌로 버티며 오로지 화두삼매에 정진하였거늘, 그 땅속이야 눈앞만 깜깜하지 얼마나 따뜻하냐!”

이렇게 석불과 석탑이 티격태격 말싸움이 오고 가는데, 마침 칠교가 놓여졌음을 어떻게 알고 근처의 마



보조국사 토성7교 주변지도. 1:50,000

을 주민들이 달려와서 스님 앞에 엎드린다.

“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스님을 뵈려 해도 어찌 조까 넘어갔나 하면 또 산이요, 건넌나 하면 또 골짜기니, 보리밥 한 그릇 근근이 쭈셔 넣고 송광사 일주문에 닿기도 전에 뱃가죽이 등허리에 닿아 쓰러질 지경이었건만... 아이고, 이 길 좀 보더라도. 팔팔이 고속도로가 형님 하것네.”

이때부터 주민들은 저희 마을을 ‘복다리’라 이름을 고쳐달고 해마다 스님을 기렸단다.

또 그렇게 걸어가다 목마르면 천평泉坪이요-천평은 보조국사께서 판판한 땅에 지팡이로 땅을 뚫어 샘터를 잡아주셨다는 데서 유래하는데, 현재 창촌이라고도 부른다-오산鰲山(지금은 五山)이니, 맹별에 목말라하던 임촌의 마애불도 달려오고, 근처의 고분군의 송장들도 목을 축이는구나. 때는 사시巳時에 가까워져 멀리 아미산의 산봉우리가 보이고, 맹경다리를 건너니 아미사(지금은 천태암)의 지붕이 보였다.

멀리 보조스님의 방광放光을 보았는지 천태암의 나한들이 미리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이른다.

“저희들이 한때 조계曹溪의 적손嫡孫이라며 수행에는 방일放逸하고 시주만 축내다가, 이제 스님의 법을 이렇게 날마다 만나게 되었으니 제 전생의 복덕이 아니었다면 오늘 스님을 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다리에서부터 따라온 창촌과 오산의 주민들이 모두 뒤를 이어 따라오며 누군가 지어 불렀는지 소리를 매기는데, 얼마나 구성진지 먼 훗날하고도 먼 훗날, 송광사의 주지스님이 다시 토성칠교를 찾은 오늘, 매운 바람에 몸을 떨며 웅얼거리던 그 노래가 이제는 저 소나무의 기억에도 가물하지 않을까.

선암 송광 구경하여  
토성 칠교 구경하여  
맹경 다리 건너가서  
아미산 절 구경가자

#### 번뇌를 넘다

“왜 칠교겠어?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또 제칠식第七識을 넘어 깨달음에 이르니 그곳이 바로 송광사



라, 그거 아니겠어.”

주지 스님은 특유의 웃음소리로 다음 말을 이으셨다.

그 옛날, 보조스님께서 거조암보다 넓은 수행터를 구하기 위해 이 ‘깨달음이 다다른 곳’인 송광사(당시 길상사)에 다다르고 보니, 도적들이 송광사에서 텃세를 부리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들을 조계종도에 반하는 화엄종도라고도 하며, 또 나한이라고도 하였다.

그 나한들이 보조스님의 법력을 청請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 공양을 올렸다고 한다. 스님께서서는 흔쾌히 드시고는 ‘불제자로서 살생을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는 나한들의 말에 ‘심공성해心空性海에는 살활殺活이 자재自在하다’라고 하시고는, 다시 물고기를 토해내니 지금 우화각 아래 노니는 고기들이 바로 그 법法의 후손이라...

“물속에 노니니 자유자재自由自在하고, 살아 꿈틀거리니 성성惺惺한 것 아닌가?”

다시 주지스님께서 웃으신다.

이어지는 전설에 따르면 ‘만일 관리가 이 토어吐魚의 후곤後昆에 대하여 비록 조그마한 한 마리라 할 지라도 어식漁食·조희釣戲·침롱侵弄등을 자행하는 이가 있을 때는, 곧 국사國師의 신통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관직의 파면을 만나게 되는 양운殃運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는 우화각 아래에서 불살생不殺生의 자비가 살아 움직이는 법문으로 천년을 이어온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는 이마다 빵가루를 뿌려주고, 그 노니는 모습에 아이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것일까? 그리고 보조스님께서 그 나한들을 위해 직접 절을 지어, 날마다 이 토성칠교를 통해 법문을 하려 가셨다고 하니, 그 행적마다 자비가 아닌 곳이 없었던 것이다.

번뇌는 끊으려 해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안으로는 도적을 거두셨듯이 마음의 육적六賊을 거두고(그래서 보령재를 거투去偷재라고도 한다), 모든 유정무정에서부터 한 마리의 물고기까지 구제하겠다는 원願을 몸소 보이셨으니, 송광사로 이어지는 복다리·천평泉坪에 이르기까지, 처처處處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법문이 아닌가?

그러니 와서 디더 보라! 토성칠교에 서서 아미산을 향해 바라보기만 하여도 팔만사천법문을 한 풍광風光으로 펼쳐서 보여 주셨으니...

그 옛날 토성칠교를 오르내리면 아픈 다리도 거뜨해지고 수명도 길어진다는 전설쯤이야, 토성칠교를 끼고 도는 마을과 샘물, 그리고 시냇물의 유정무정들이 말해주는 화장세계華藏世界の 법문에 비기겠는가?

#### 파헤쳐진 전설

어찌 포크레인의 삼날뿐이라! 방둑 속에 묻혀진 이름 모를 석탑도 그러하고, 비바람에 씻겨가는 마애불의 미소 또한 그러하다. 무관심! 풀어쓰면 ‘널 볼 마음이 없다’는 말. 보조스님의 청천벽력 같은 주장자소리가 저 아미산부터 이 송광사까지 날마다 쿵쿵 울렸을 것인데도, 이 범부는 마치 목석木石인양 귀를 틀어막고 보이는 눈을 억지로 싸매어 봉사노릇을 하였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일인가!

이 터지는 분통보다 더 처참한 몰골이 이 토성칠교를 둘러싼 산과 나무들이고 보면, 마치 토성칠교는 아마 그 옛날 역병疫病이 지나간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불과 천년 전까지만 해도 여긴 보조스님과 함께 살던 불국토였는데, 눈을 떠보니 내 둘레의 모든 것들이 쓰러져 죽어있었습니다. 스님께서서는 그 지팡이 하나만 송광사에 남겨 놓으시고는 어디론가 사라지시고, 지금은 저 혼자 스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다 오늘에 사 죽은 송장처럼 무덤에서 나온 꼴인데, 이렇게 스님의 지난 행적이라도 찾아주셨으니, 제 사지가 아니라 뼈 속까지 벌벌 떨며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 뻗속까지 떨리는 한恨을 그래도 청청淸淸한 소나무 한 그루가 애써 울부짖지 않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부처님의 법法을 믿으며 올곧게 이르려는 신심信心일 것이다.

그가 푸르게 눈보라를 이겨내며 결국 파헤쳐질 마지막 날에는, 송광사 일주문 너머에 꽂혀 있는 보조스님의 지팡이에 어서 한 잎 짝이 돋기를 빌면서 삼배라도 할 일이다!



## 불효

해청海淸 | 사미

하나도 아닌 두 아들을 모두 출가시켜 마음이 오죽하실까... 출가하기 전의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 이 글을 올립니다.

“도대체 뭐길래, 왜 내 아들들이...” “본래 나는 자식 복이 없다더니만 결국 둘 다 스님이 되는구나.” 하시며 돌아서서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의 조용한 울음소리에 ‘그냥 이대로 속세에 어머니와 살까’라는 생각을 몇 번 더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달래 드리지 못하는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저도 아직 불법이 뭔지 모릅니다. 속세에 살면서도 홀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옆에서 바라보며 ‘내가 과연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참 효도가 뭘까?’, ‘열심히 삶을 익혀서 어머니께 반지 하나 옷 하나 사드리는 게 효도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욱 좋은 것은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선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했건만. 힘든 행자 생활을 끝내고 행자교육원에서 부모님께 삼배를 올릴 땐,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와 홀로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절을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내 가슴을 찢어놓더니, 아직까지 한 생각 놓지 못하고 이렇게 또 그리며 걱정합니다. 설령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 어떤 삶보다 수행자의 삶이 좋다고 하신 은사 스님 말씀을 되새기며, 조금씩 무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조금씩 느껴질 때, 출가를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한답시고 절에 와서 은사 스님과 사형들 덕분에 생각 밖으로 잘 입고 잘 먹고 하면서 게을러질 때마다 다시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채찍질하지만 마음먹은 만큼 되지 않습니다. 아직 공부가 깊지 않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뜻을 잘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요.

그때는 제가 어머니도 제도濟度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 놓으시고 편안히 계십시오. 게으르지 않게 늘 정진하려 노력하는 마음과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스님다운 스님이 될 때까지 걱정을 놓으시고 잘 지켜 봐 주십시오. 한 사람이 출가하면 9족九族이 하늘에 난다고 했으니, 우리는 18족이 하늘에 날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럼 이만 줄이고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때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홀로 주무십니까?



# 예, 시님!

수원 | 치문

어느 처사님이 절에 왔다. 부처님 전에 절을 끈게 하고는 마음이 울적했던지, 한 스님에게 말을 걸었다.

“시님, 여쭙어 볼 게 있는데요.”

“예, 물어보세요.”

“시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되나요?”

“예, 그러세요.”

“네, 시님. 우리 딸아이가 있는데요, 절에 계시는 시님들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절에 가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절도 아주 깊고요, 부모 말씀도 잘 듣거든요. 효녀거든요. 학교에도 잘 가고 공부하는 반에서도 상위권에 들고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머리로 영특해서 친구들이 많이 찾아 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 딸아가 시님이 될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걱정이네요. 시님은 좋은 생각 있는 지요.”

“예, 그러세요. 처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절에 데리고 와 보세요.”

“예, 시님.”

처사님은 그러고는 절을 내려갔다.

며칠 뒤 그 처사님이 왔다. 열 살쯤 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시님,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아, 그래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어린 친구들 많은 곳, 어린이 법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시님?”

“시님, 시님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시님(스님)이라 불러야 하는데 제 입모양이 잘못돼서...”

“예, ‘시님’ 하세요.”

“예, 시님!”

‘앞으로 봐도 중, 뒤로 봐도 중.’ 아마도 수원스님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사람들과의 인연은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되고, 행동에는 재주와 기교가 없고 순박하고 천진하며 꾸밈이 없다. 요즘 흔하게 길들여진 인스턴트 음식의 맛이 아닌, 잘 곰삭은 된장의 맛이 저절로 나오니, 보면 볼수록 우리의 내면을 살찌우는 멋진 도반이다. - 석원石原

▶ 위 이야기는 수원스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목우도량석/송광사 어린이법회를 찾아서

# 어린이법회 지도법사를 맡을 상주소임자가 있으면 좋겠다

편집실

어느 일요일의 지대방. 어린이법회를 끝내고 돌아온 지도법사 정공스님은 피곤이 역력한 얼굴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하루인데...’ 대부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오랜만의 여유를 찻잔 속에 담아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곤한 잠에 빠진 스님의 얼굴을 보며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측은한 마음이 앙금으로 남아 이렇게 오늘, 송광사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탑전의 다각실에서, 오늘은 오히려 힘이 넘치는 듯한 지도법사 스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보람 있을 때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모습을 볼 때...랄까”

아주 말없는 아이가 있었다. 묻는 말에도 잘 대답하지 않고 스님 둘레를 걷도는 아이였는데, 그럴수록 법회 때마다 말을 건네고 잘못된 점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때론 따뜻한 말로 조금씩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를 마치고 집까지 배웅해주는 버스 속에서 “내릴 때 다른 아이들이 버린 휴지도 눈에 띄면 꼭 줍고 가면 어떨까? 그래야 착한 어린이지, 알겠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트 사이를 비집고 차분히 휴지를 줍고는, 스님의 얼굴을 쓸쩍 훑쳐보고 부끄러운 듯 부리나케 달아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구산스님의 사리탑이 바라다보이는 탑전의 뜰 위로 눈이 내렸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정혜사 편집실’의 이름으로 찾아온 것을 스님은 매우 고마워했다. 그 고마움이라는 것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작게라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였을까? 들으면 들을수록 진작 찾아왔어야 했다는 생각에 몇 번이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학인으로서 어려움이요? 많죠!”

법회를 마치고 정혜사 큰방을 지나오면 대중스님들의 저녁 간경소리가 들려온다. 밤하늘을 그윽히 가로 지르는 간경소리.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잠깐일 뿐이다.

지대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간경을 마치고 돌아온 스님들이 짓궂게 물어본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요?”

사실 송광사 어린이법회는 송광사 일주문 안에 있는 탑전에서 하건만 대부분의 스님들은 밖에서(밖이라면 순천이나 광주 등을 말한다) 바람을 쐬고 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볼 때면 어떤 자괴감마저 든다고 한다. 일요일에 어린이법회는 그저 서너 시간 정도로 끝내고 나머지는 밖에서... 바람이라.

법회가 끝나면 파김치가 된다고 한다. 일주일을 간경과 울력으로 보내고 단 하루지만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려 하면 오히려 옛세 동안의 피로보다 더할 때가 많다고 한다. 그 피로가 화요일까지 겹쳐 간경시간이면 쉽게 졸리고 쉬는 시간이면 거저 눕고 싶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단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그 때부터는 ‘다음 주 법문을 필로 할까?’ 라는 화두가 예불시간이나 공양시간마다 떠오른다고 한다. 한 마디로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요즈음은 겨울 수련회 준비로 나머지 간경시간도 빠져야 된다고 하니, 듣는 이의 마음마저도 쓸쓸해졌다. 학인으로서 공부의 리듬을 잃어버리는 것, 그 위험성을 우리 편집실 식구 또한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법회 선생님들과 일요일의 법회 준비를 위해 간경시간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고 하니, 대중 스님들의 맑은 간경소리가 바로 이와 같은 스님들의 희생 속에 있음을 밝혀 적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그... ‘총체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린이법회 법사 스님은 사집반에서 일 년 동안 맡는다. 치문반 스님도 보조 법사로서 일 년 동안의 소임기간이 끝나면, 사집반에서도 이어서 하는 것을 잠정적인 원칙으로 한다. 왜냐면 이전에는 심지어 안거 단위로 소임자가 바뀌다보니 미처 법회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다른 소임자에게 전수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그래서 작년부터 어린이법회에 원력과 뜻을 둔 스님들을 각 반에서 물색하여 일 년 넘게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미봉책이다. 설령 일 년씩 소임을 맡는다고 해도 겨우 아이들과 안면을 트고 어울리게 되는 쬐에 다시 아이들은 다른 낯선 스님을 맞이하게 되고, 스님은 스님대로 또 다시 맨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



는 것이다. 이것은 법회를 도우는 간사님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한불교대학생 연합회 소속인 청암대학교 선생님들 또한 일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송광사 어린이법회의 주인은 바로 법회를 서너 해 다닌 고학년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제대로 어린이법회를 담당할 상주 소임자(이를테면 포교국장 스님)가 없다는 것이다. 학인 스님들이 지도 법사를 맡는 것은 단지 미봉책일 뿐이다. 정식 소임자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법회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해마다 연초면 어린이법회는 안정을 되찾기 위한 몸살을 앓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금의 법사 스님의 몫이 된다. 차량 섭외에서 심지어는 차담 준비까지 어느 것 하나 스님의 손이 거쳐 가지 않는 일이 없다. 강원 생활과 병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다.

송광사 어린이법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 종단이 어린이법회에 가지는 무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 예산 삭감에서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이 어린이 포교 전문지인 <연꽃>의 폐간이 아닌가. 이것은 다만 종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말한 바로 옆 도반 스님에서부터 사중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법회는 무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다. 이것은 다만 송광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불교계가 직면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얼굴이다.

몇 번씩 포교국장 스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스님이 아니면 지도간사라도 지속적으로 할 재가자가 있다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정혜사>에 꼭 실어 줄 것을 요청하는 스님의 얼굴이 진지하다 못해 엄중하다.

“어린이법회가 잘 되면, 스님들이 가장 많은 덕을 볼 거예요.”

“제가 아는 재가자들 가운데에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법회를 통해서 불교를 배워서 중고등학생 법회, 또 대학생법회를 거쳐서 스님들과 함께 뜻있는 일을 열어가는 신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린 때부터 부처님의 법을 따라 이어진 인연이라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건의 열악함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원력을 앞세워 일을 박차고 나가는 신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법회가 제대로 된다면 먼 훗날, 스님들은 어딜 가나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출가자로서 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신심있는 재가자와 같이 병행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지금 수많은 불교계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고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다. 그 가운데에는 듣는 이로 하여금 흐뭇하게 미소짓게 하는 일도 있었다. 어느 날 관물대를 열면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라고 쓴 봉투가 놓여 있을 때가 있다고 한다. 그 안에는 물론 성의껏 넣은 보시금이 들어 있다.

<정혜사>라는 자리를 빌미로 뜻있는 스님들을 욕되게는 하지 않았는지 조심스럽다. 그 조심스러움만큼, 많은 스님들이 일요일만큼이라도 어디에서나 어린이법회 법사 스님이 지나가면 진심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한다. 아니면 멀리서 바쁘게 걸어가는 법사 스님을 향해 진심으로 발원해 주시기를, 어린이법회가 잘 이루어져 청정한 승가와 신심있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지도법사 스님이 몇 번이나 강조한 ‘정식 법사 스님(포교국장)과 간사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 혹시나 하는 바람으로 다시 끝자리에 마무리로 적어본다.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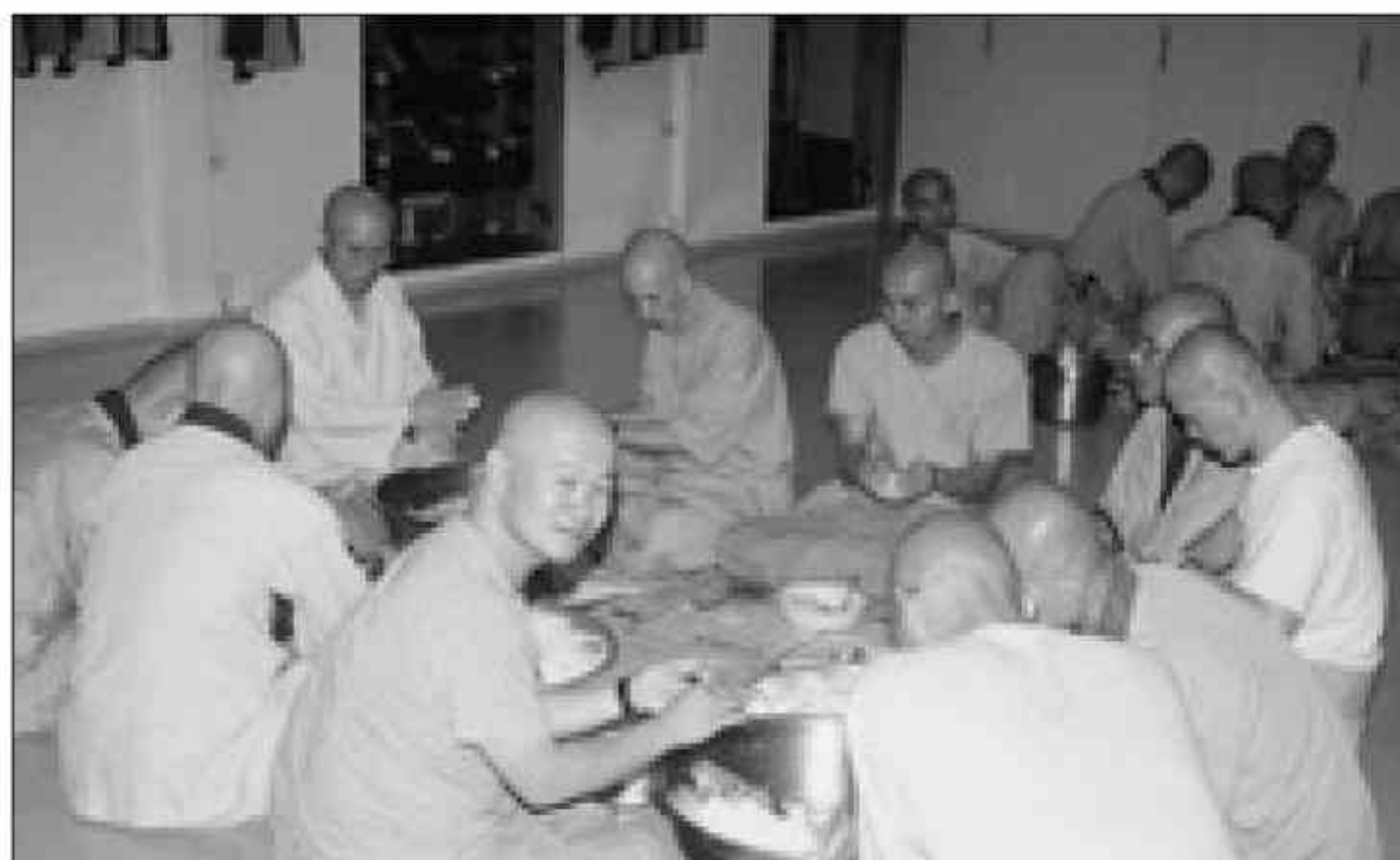
- ▶ 오래도록 헐어 있던 대법고를 수리했습니다. 그 소리가 '둥둥!', 신심나는 예불이었습니다.
- ▶ 송광사에도 찾집이? 금명보정선사의 '다송자' 라는 호를 따서 '다송원' 이라 했습니다.
- ▶ 불탄 그 자리에 다시 영각을 짓고 효봉스님께 추모법회를 드렸습니다.  
스님의 절구통같은 법력이 길이길이 보존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 ▶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재가와 출가를 가리지 않는 것인가 봅니다.  
'맑고 푸르게' 신도회와 함께 도량 구석 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다보니 동장군도 주춤 물러섰습니다.



2001년 9월 19일 대법고 타고식



10월 3일 문바르기 운력



9월 30일 송편 빚기 운력



10월 14일 다송자 세미나



10월 14일 찾집 '다송원' 개원식



10월 15일 선덕구암당 무불대선사 영결식 및 대비식





10월 18일  
효봉대선사 추모대법회



10월 19-27일 비구니계 · 식차마나계 수계산림



11월 1일 감자밭 윤력



11월 4일  
맑고 푸르게 신도회와 함께 도량청소 윤력



11월 8일 티벳 호법신 레충 쿠텐 신탭승 툽텐 노둑 린포체의 특강



11월 10일 배추밭 윤력





11월 26-30일  
동안거 무장무애기도·  
신중기도 및 동안거 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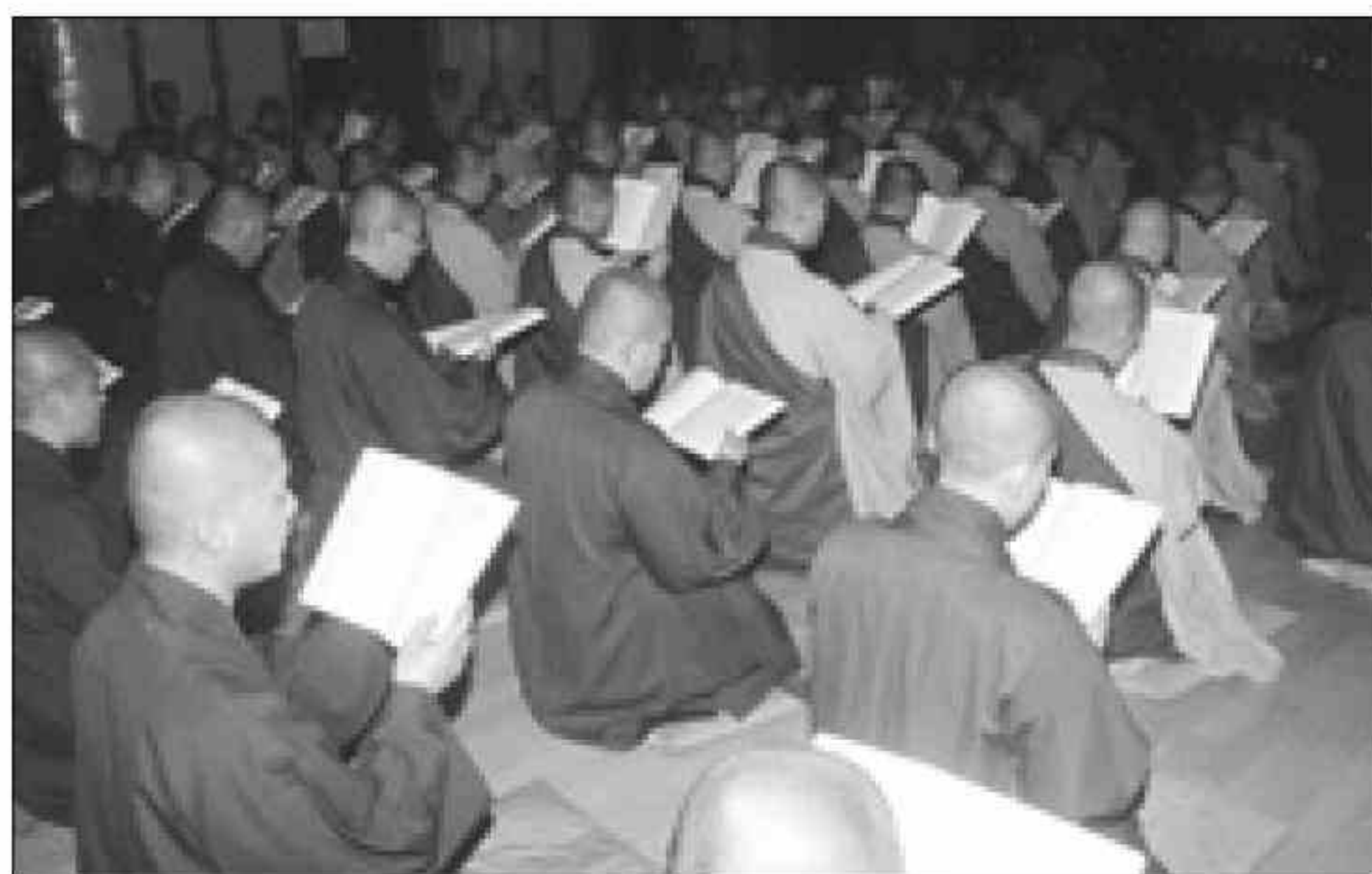
12월 4-5일 김장 대중 운력



12월 25일 장작 운력



2002년 1월 6일  
조계종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



1월 14-20일 성도재일 가행정진(자비수참)



1월 15-19일 진옥스님 「금강경」 특강



---

##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꾸뚝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박채균  
연락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우성스님 061)755-5302

---

## 강의(특강) 테잎 보급

송광사에서는 특별 강의 테잎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카세트 테잎

지운스님 · 법화경 1~2 33개 | 48,000원  
정연스님 · 인도철학 18개 | 25,000원  
용운스님 · 차茶 이야기 17개 | 25,000원  
정화스님 · 유식 30송 11개(교재포함) | 25,000원  
정화스님 · 중론中論 23개 | 30,000원  
해거스님 · 도덕경 16개(교재포함) | 23,000원  
고우스님 · 선요禪要 25개 | 30,000원

### 비디오 테잎

지운스님 · 영성의 불교적 이해 1개 | 7,000원  
진옥스님 · 설법하는 법 1~4 4개 | 30,000원

구입처: 송광사 강원 서기 ☎061)755-5302(전화주문도 받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500660-01-000289 송광사 서기

테잎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



## 심장병 환자 후원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어려움 속에서도 말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를 아껴 주는 식구들의 사랑, 병든 이들의 괴로움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자비의 실천이라 믿습니다.

저희 송광사 강원에서는 보월스님이 처음 원력을 세워 한국심장재단과 결연하여 심장병 환자들을 도와 왔습니다. 1999년 9월 21일 1차 지원을 시작으로 2002년 2월 26일 동안거 해재 일 현재, 스무 명의 환자를 지원하여 열다섯 명이 탈없이 수술을 마쳤고, 다섯 명이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장병 환자 돕기에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흥현스님과 다른 강원 스님들, 송광사 강사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에서 심장병 환자를 직접 돕는 일은 앞으로 잠깐 중단됩니다. 그러나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원력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1999. 9. 21 | 1차 지원 / 2000. 2. 8 | 2·3차 지원 / 2000. 3. 28 | 4·5차 지원 / 2000. 4. 4 | 6차 지원 / 2000. 5. 23 | 7차 지원 /  
2000. 6. 27 | 8차 지원 / 2000. 9. 5 | 9·10·11차 지원 / 2000. 12. 12 | 12차 지원 / 2001. 3. 12 | 13차 지원 /  
2001. 4. 17 | 14차 지원 / 2001. 9. 18 | 15·16차 지원 / 2001. 10. 5 | 17차 지원 / 2001. 11. 14 | 18차 지원 /  
2002. 1. 30 | 19차 지원 / 2002. 2. 26 | 20차 지원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분은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총무과 황영옥 과장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207호 ☎(02)414-5321



## 강원소식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삼정사 주지 스님과 신도회·금강선원(이상 장학금 기탁)·송광암 주지 스님·이영숙님·이미현님·안정희님·류인석님·김갑숙님·조인수님·안인준님·조영숙님·사평 오인방님·천진행님·박동윤님·강정윤님·윤순근님·홍원표님·정만법행님·이현재님·배준하님

### 대중보시하셨습니다

송광사 주지 스님·송광사 강주 스님·동화사 주지 스님·동명불원 주지 스님·개천사 주지 스님·대원사 주지 스님·총무부 교육국장 스님·해인사 율원장 스님·송광사 율주 스님·전등사 회주 스님·구암스님·상좌 일동·길상사·무각사·관음사·한마음선원·서울 약수암·해인사 강원·최해륜님·수련회 3차 어느 수련생님·박근우님·문미경님·서울 법련사 정련화보살님·조계사 신도회·강원 후원회·광양 후원회

### 강원발전기금 도와주셨습니다

조수련화님·김미향님·김현정님·신증녀님·도기탁님·윤한식님·이영희님·서귀자님·도홍직님·안인준님·이현재님·박정란님·남석련화님·이복연님·김진성님·윤상석님·묘희심님·이병학님·이병관님·이종만님·임귀자님·양종숙님·강원 후원회·송원회 안양화님·순천후원회·마산창원후원회·유식학인회·광주송원회

###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법련사 주지 스님·무각사 인석 인담스님·참선수련회·조계사 신도 일동·대승사 신도 일동·부산 관음사 신도회·문화정(수승지)보살·음성공양보살·한마음선원·도양 불일회

##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호평과 질책으로  
힘을 얻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해 주시고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정혜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다립니다.  
주소가 바뀐 분은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우체국 온라인

502864-06-004467 서화교

### 주소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정혜사〉 편집실 540-930

### 전화

061) 755-5302

## 편집후기

진솔한 글이 너무 고맙다는  
남전스님.  
쓸 말이 없을 만큼 바빴던  
해진스님.  
믿고 따라준 두 스님이 그저  
고맙기만 한 효산스님.  
어눌하지만 이렇게 어우러져  
마침표를 찍는 24호.



# 신입 및 편입 방부 안내

조계의 맑은 물이 흐르다 머무는 송광사 전통강원에서는  
보조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계정혜戒定慧 삼학의 실천 속에서  
맑고 아름다운 수행자의 길을 같이 갈 도반 스님을 찾습니다.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송광사 전통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방부받는 반

치문반 | 신입 00명  
사집반 | 편입 0명  
사교반 | 편입 0명

## 자격

치문반: 신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사집반: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사교반: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제출 서류

방부원서 | 2부(강원 소정양식)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승려증 사본 | 1부  
전학증, 수료증(편입생) | 1부  
사진 (3×4) | 3장  
방부금 | 30만원

준비물 : 대가사(비구), 만의가사(사미), 장삼, 발우

전형방법 : 서류, 면접

방부기간 : 불기 2546년 4월 1일~4월 26일

문의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강원 ☎061) 755-5302

松廣寺 傳統講院





曹溪宗風 찾아보려 佛日門에 드리서니  
方丈室 最後遺囑 和合하게 지내랴다  
아마도 定慧結社 뜻도 和合爲本이런가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

**불일문** 선방禪房으로 쓰고 있는 수선사修禪社와 국사전國師殿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불일佛日'은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제1세世이신 지눌스님의 시호諡號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에서 따온 것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태양'을 뜻한다.